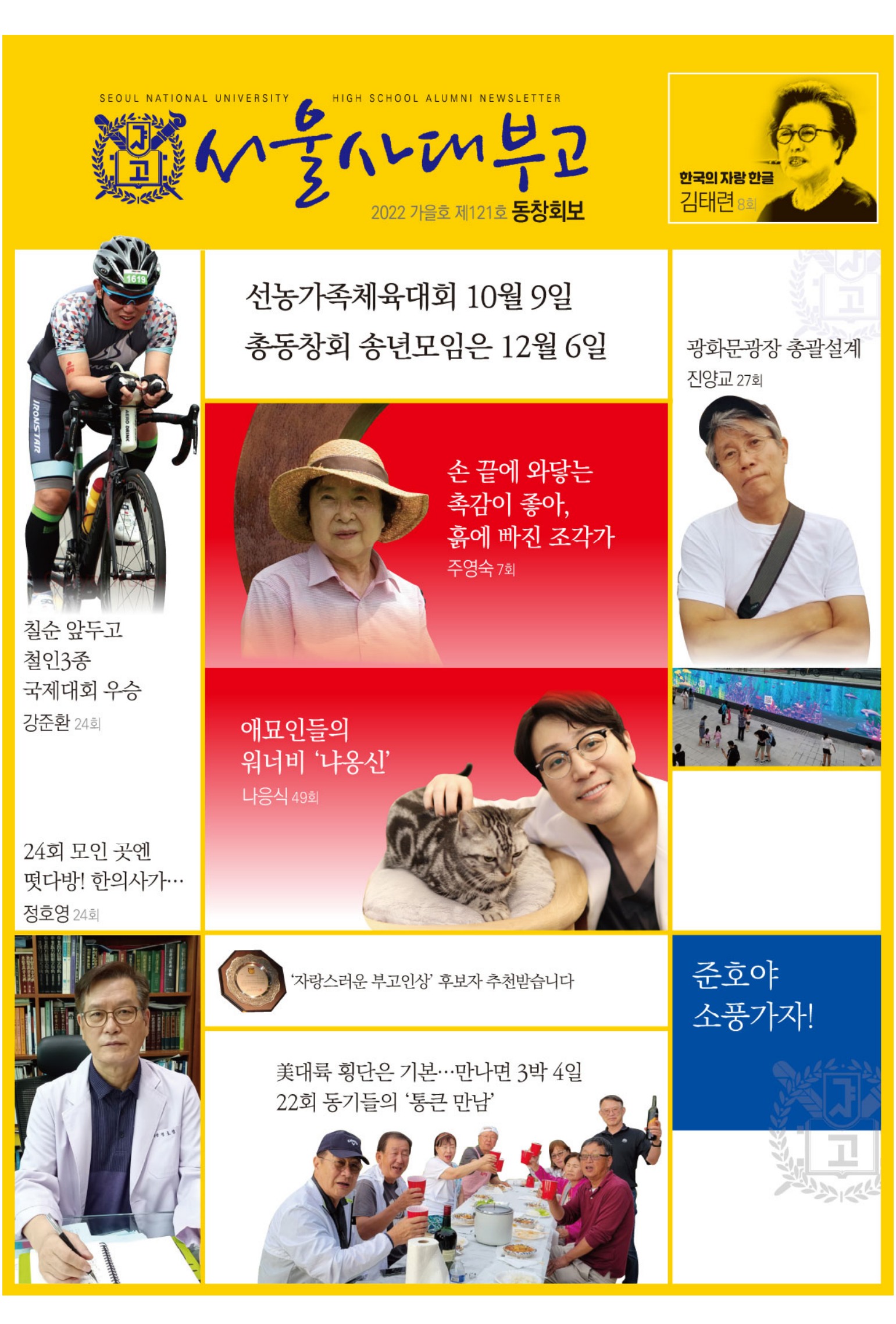
121호 (2022년 가을호)

by 사무처 posted Sep 02,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LUMNI NEWSLETTER
서울사대부고
2022 가을호 제121호 동창회보

한국의 자랑 한글 김태련 8회

선농가족체육대회 10월 9일
총동창회 송년모임은 12월 6일

칠순 앞두고 철인3종 국제대회 우승 강준환 24회

손 끝에 와닿는 촉감이 좋아, 흙에 빠진 조각가 주영숙 7회

광화문광장 총괄설계 진양교 2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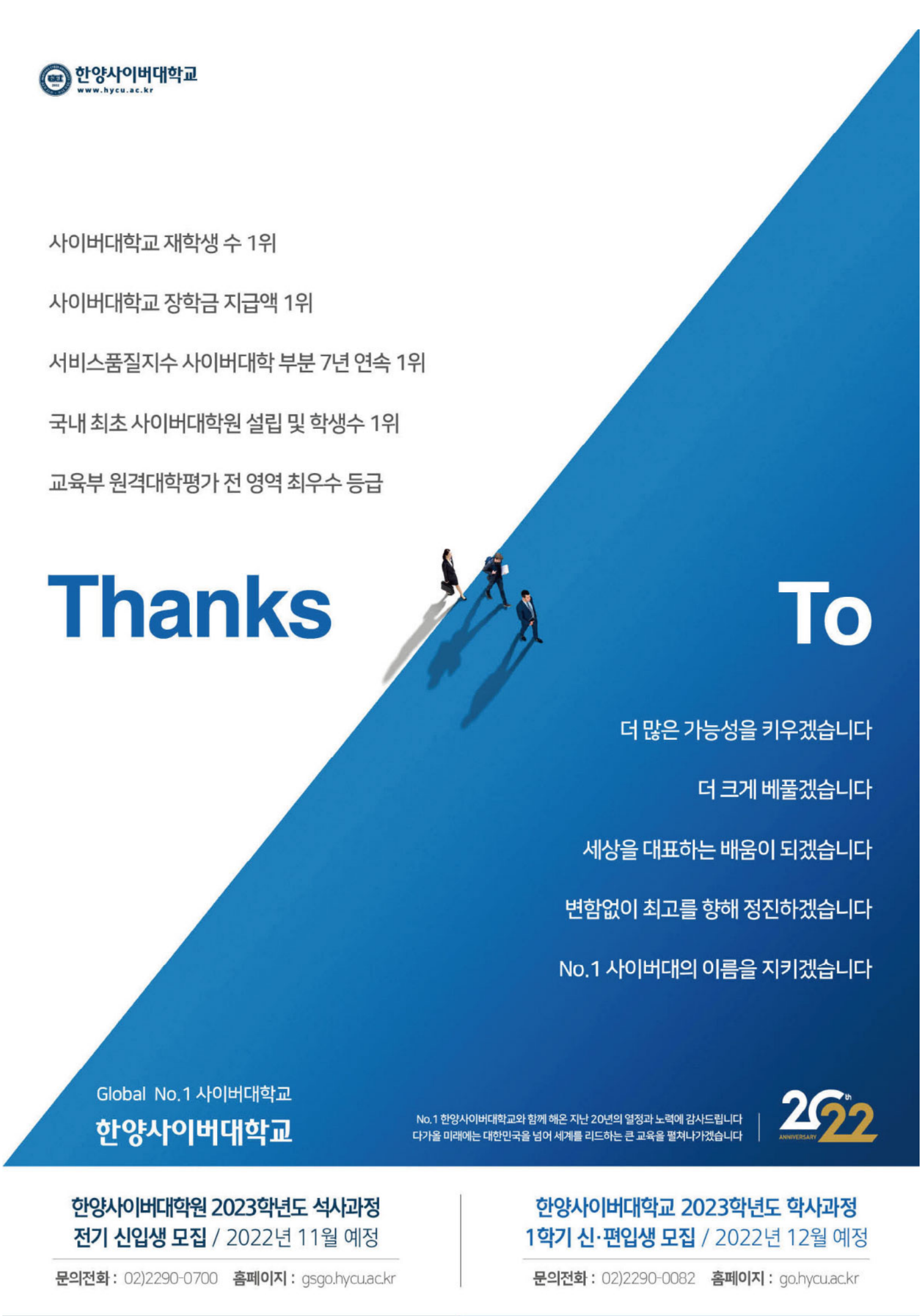
애묘인들의 워너비 '냐옹신' 나응식 49회

24회 모인 곳엔 떳다방! 한의사가… 정호영 24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후보자 추천받습니다

美대륙 횡단은 기본…만나면 3박 4일 22회 동기들의 '통큰 만남'

준호야 소풍가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수 1위
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액 1위
서비스품질지수 사이버대학 부분 7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학생수 1위
교육부 원격대학평가 전 영역 최우수 등급

Thanks To

더 많은 가능성을 키우겠습니다
더 크게 베풀겠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배움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최고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No.1 사이버대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Global No.1 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No.1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해온 지난 20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큰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2

한양사이버대학원 2023학년도 석사과정 전기 신입생 모집 / 2022년 11월 예정
문의전화 : 02)2290-0700 홈페이지 : gsgo.hycu.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2023학년도 학사과정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2022년 12월 예정
문의전화 : 02)2290-0082 홈페이지 : go.hycu.ac.kr

* * *

그동안 살아내시느라 많은 일을 경험하셨지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좋지만 때로는 모두 표현하지 않은 채 안으로 쌓아둔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면 책 몇 권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 주길 바라며 간혹 내입장에서 공감해 주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니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걱정할까 봐 이야기 못 하고,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나만 유별나게 이러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누군가를 어렵게 시간 내어 만났는데 만난 분의 사연이 너무 많아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분의 이야기만 들다가 온 적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들어줄 누군가가 없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글로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다만 SNS에 글을 쓸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글은 비밀글로 게시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말로 하는 이야기, 글로 하는 이야기, 기도로 하는 이야기 등 어떤 형태로든 나의 이야기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자주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한 듯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다 보면 또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면서 평화로워지길 응원합니다.

편집위원 일동

CONTENTS 목차

NEWS & PEOPLE
04 종합뉴스
30 회원동정
32 미주알 고주알 · 신간안내

HOT PEOPLE
08 주영숙(7회) – 흙에 빠진 조각가
10 강준환(24회) – 철인3종 국제대회 우승
14 정호영(24회) – 떳다방! 한의사
18 진양교(27회) – 광화문광장 설계
20 나응식(49회) – 애묘인들의 워너비
22 홍세훈(49회) – 손흥민 광고 제작

ARTICLES
24 한국의 자랑 한글이 울려 퍼진다
– 김태련(8회 · 아이코리아 이사장)
26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문이 열렸고 신세계가 펼쳐졌다
– 김동진(19회)
28 4명의 동기들이 치악산으로 간 까닭은?
– 천준수(24회)

GLOBAL ALUMNI NEWS
38 글로벌 동창회 소식
미주 웹사이트 개설…한국 동문들과 소통 기대
40 미대륙 횡단은 기본…만나면 3박 4일
미국에 사는 22회 동기들의 '통큰 만남'

MEMBERS & BRANCH
34 지회소식
36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44 맛…멋…향…더할 나위 없었던 25기 봄 소풍
– 서명자(25회)
46 준호야 소풍가자! – 황준호(31회)
50 동기회소식

ALMA MATER NEWS
58 모교소식

서울사대부고 2022 가울호 제121호 동창회보
2만 8천 명이 구독하는 동창회보

발행인 이강년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처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홈페이지 www.snubugo.net
편집위원장 한경준(31회) 편집위원 정교철(24회) 송원기(30회) 이윤형(33회) 조용식(35회) 류한경(36회) 문효숙(38회) 임재승(41회) 전수용(45회) 김제나(73회)
주소 046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전화 02)588-7871 팩스 02)588-7872 이메일 snubugo@chol.com 디자인 한스 02-3273-1247
1982년 12월 15일 첫 호가 발행된 서울사대부고동창회보는 2만 8천여 동문과 더불어 동창회 4대 지표인 참여·대화·협력·번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선농가족체육대회 10월 9일 열린다

3년 만에 개최… 48회 주관 모교 운동장에서
2022년 선농가족체육대회가 48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9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48회 임원진(임성원 기별 회장, 박종학, 심형섭)은 지난 6월 23일 양재동 엘 타워 디오디아에서 이강년 총동창회 회장을 모시고 행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다음 체육대회를 진행할 49회(조영승, 홍세훈), 50회(김창현) 동문이 함께했다.

선농 체육대회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9일 제19회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48회 기수들이 모여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코로나의 인해 3년 만에 진행되는 큰 행사이고, 코로나의 위험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만으로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저희 48회 기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야기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배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이 절실합니다.
성공적인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위해 48회 기수들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022년 10월 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3-4574275
예금주 임성원(사대부고48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10월 9일 열려

제22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가 오는 10월 9일 모교 체육관에서 3년 만에 개최된다. 2000년부터 시작한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20여 년간 많은 선후배의 동참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바둑대회는 매년 빠짐없이 참여하는 8~21회 동문과 23~29회 동문들의 출중한 바둑 기력을 다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 동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오목대회도 개최된다.
일시 : 10월 9일(일) 오전 9시
장소 : 모교 체육관

선농미술인회 9월 21~26일 전시

제5회 선농미술인회 전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문들이 직접 그리거나 작업한 서양화·동양화·조각·도예·서예·공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심상덕 사무국장 (010-9099-1303)

선농가족 탁구대회 11월 5일 모교 강당서

제2회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장배 선농가족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5일 모교 강당 2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개인단식(남,녀별) 개인복식(남,녀,혼성)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격은 총동문회 회원 및 사대부고 교직원이면 된다.
문의 : 20회 김성렬 총무(010-2329-4908),
박주엽 간사(010-7140-4776)

총동 송년모임 12월 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그리운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송년회, 총동창회의 한 해를 정리하는 제47차 정기총회, 그리고 2022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6일(화) 오후 6시 양재동 엘 타워 7층 그랜드 홀에서 개최된다.
송년회 모임에서는 각 기수별로 자리하며 공연, 그리고 퀴즈를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제47차 정기총회에서는 총동창회 예산 집행 결과 보고와 함께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선정과정, 그리고 지난해 개국한 선농TV 활성화 방안과 취미활동 소모임 결성 등 동문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사대부고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는 매년 모교에 장학금 기부와 임원회비 최다 납부, 동창회비 최다 납부, 졸업기념 발전기금 등에 대한 감사장과 공로패, 공로상 등의 시상식도 열린다.

기수별 송년회 일시 및 장소		
14회	11.14(월) 오후 4시	양재동 L타워
15회	12.01(목) 오후12시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16회	12.16(금) 오후 6시	양재동 L타워
19회	12.02(금) 오후 5시	양재동 L타워 (8F 엘가든홀)
20회	12.17(토) 오후 5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
21회	11.21(월) 오후 6시	양재동 L타워
22회	11.22(화) 오후 5시30분	양재동 L타워
26회	12.09(금)	양재동 L타워
31회	11.26(토) 오후 5시30분	리버사이드호텔
33회	12.02(금) 오후 7시	동창회관 3층 선농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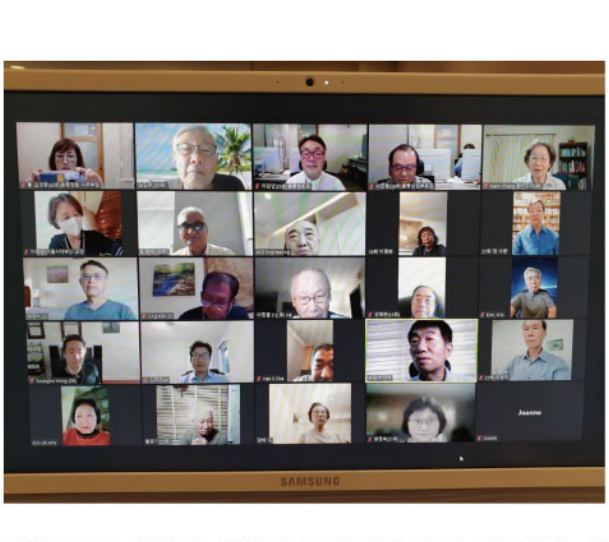
선농TV에 동영상 올려 주세요

2021년 3월 야심차게 개국한 선농TV가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기획 부족, 인원 부재 등으로 활동이 미미해 동문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총동창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문들이 직접 제작해 올리는 '선농TV 동영상' 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선농TV 동영상'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 홍보를 위한 내용 등을 2~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해 사무처로 보내주면 된다. 선농TV 동영상 활성화를 위해 선농TV 스튜디오 무료 개방, 연말 우수 동영상 포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대부고 최고 골퍼는 누구?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0월 25일 열려
골프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올해, '사대부고 골프의 제왕'을 찾는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10월 25일(화) 11:40분 뉴스프링빌 C.C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골프대회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전과 평소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전에는 총 40개 팀, 16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단체상은 남녀 포함 4인 최저점수 합계이며 같은 동기들과 한 팀을 이룰 경우 성적에서 제외함. 우승, 2등, 3등, 최다참가상이 있다. 개인상은 남녀 메달과 남녀 롱기, 남녀 니어상, 그밖에 행운상이 있다.
한편, 사대부고 동창회 골프모임인 청구회에서는 매월 네 번째 화요일에 20팀이 모여 월례회를 갖는다. 골프를 좋아하는 부고의 젊은 기수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모교 재학생 美초청 등 지속가능 사업 논의



총동창회, 미주연합회와 ZOOM회의
지난 7월 21일 모교 미주연합회가 주최하는 '드림 빅 프로젝트(모교 재학생 미국초청행사)'와 미주연합 소식 홍보를 위한 ZOOM 회의가 총동창회, 미주연합회, 모교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동문회와 미주연합회간 단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진행, 재학생들과 선배와의 네트워크 멘토링 가능성 검토, 하위기수에 대한 동창회 부흥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ZOOM 회의에는 이강년 총동창회장과 이진형 상임부회장, 유인선 고문, 한경준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주 미주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참석자 명단 참고), 그리고 모교 이화성 교장, 하만호 교감이 참석했다.

– 미주연합회 (28명)
8회 권오화 시카고, 10회 변인재 뉴햄프셔, 손난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12회 이정열 미시간, 16회 이명희 시애틀 회장, 19회 최영태 뉴욕, 21회 김민주 미주연합회장 LA, 김형규 LA, 정수용 시애틀, 22회 박흥주 남가주회장, 이양배 토론토, 채양식 시애틀, 황춘기 아틀란타회장, 허남숙 필라델피아, 23회 김영태 LA, 노문선 토론토, 24회 곽정현 샌프란시스코회장, 25회 강인모 LA, 김영식 LA, 조병우 필라델피아부회장, 차학송 LA, 28회 이향림 LA, 31회 강태완 LA, 송명숙 토론토총무, 36회 홍성호 산호세, 47회 구송영 테네시, 49회 김태현 미시건

선농 풍물 및 사물놀이 회원 모집

부고 동문들과 함께 풍물 및 사물놀이 전통 음악으로 신명나게 어우러질 회원님들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4:30-5:30(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장소 : 동창회관 3층 선농홀
강사 : 김동흡(30회)·한국풍물교육연구소 강습 전수 다수
개강 : 9월 21일(수)
준비물 : 개인 장구 및 사물 악기
회비 : 3만원
기타 : 10인 이상으로 구성 예정
문의 및 신청 : 김동흡(30회) 010-7234-1502
동창회 사무처 (02-588-7871)

사대부고 뮤지컬단 창립단원 모집

9월 14일 동창회관서 설명회 개최
뮤지컬이 커다란 동그라미라면 아마추어의 뜨거움과 아름다움을 채워봅시다. 빨리 흘러 없어지는 세월보다는 빨리 흐르더라도 남는 세월로 만듭시다. 종합예술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깊이 있는 삶을 느껴봅시다. 도전과 극복으로 새로운 재능 발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젊음을 확인합시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대와 성취감, 존재의 가치와 함께합시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원 모집 및 설명회〉
일시 : 9월 14일(수) 저녁 7시
장소 : 동창회관 3층 선농홀
내용 : 창단 목적/ 창작 예상 일정/ 공연 연습 일정/ 첫 공연 시기 협의/ 제작 및 발표 예산/ 특정 대학교 뮤지컬학과와의 협력 가능성 타진/ 기타
문의 : 심상덕(25회) 010 9099 1303
채웅석(47회) 010 9199 5139

'2022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후보자 추천받습니다

2022년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이번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24번 째로 기별 회장들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후보자는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출하는 것으로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인문, 과학, 사회,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였거나 국위를 선양하여 학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대상입니다.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10월 심사를 하며 1~2명을 선정하여 12월에 개최되는 연말 총회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격 : 동문 전체
제출서류 : 공적 사항 및 추천서 1부 (성명, 직장, 직위 등)
추천방법 : 각 회기 동창회장 및 지회회장
후보 마감 : 2022년 9월 30일(금)
제출처 : 동창회 사무처 Email : snubugo@chol.com
Fax : 02-588-7872
우편 : 중구 다산로 43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 201호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역대 수상자

1회 김태경(4회) 1회 이인호(7회) 2회 이건희(13회) 2회 조성태(12회) 3회 이기준(9회) 3회 이우환(8회) 4회 육동창(2회) 4회 조창희(7회)
5회 강선중(12회) 5회 홍정희(4회) 5회 박병준(4회) 6회 최광률(6회) 7회 이재영(10회) 7회 변주선(12회) 8회 김태련(8회)
9회 서남표(7회) 9회 황인수(10회) 10회 전광우(18회) 11회 이희범(19회) 12회 이종욱(17회) 12회 정준양(18회) 13회 김영길(10회) 13회 석은옥(12회)
15회 정재훈(16회) 16회 김종량(20회) 17회 조한익(13회) 17회 이광형(25회) 18회 임돈희(15회) 18회 이미일(19회) 19회 호문익(12회) 19회 송필호(20회)
20회 윤상열(13회) 20회 문재숙(23회) 21회 서문원(8회) 21회 조환복(23회) 22회 윤계섭(15회) 22회 권오준(20회) 23회 정병조(17회) 23회 김익조(21회)

양주 조각공원 '예술의 향기' 조성 주영숙(7회 · 전 덕성여대 총장)

손 끝에 와닿는 촉감이 좋아 흙에 빠진 조각가

무더위가 한 풀 꺾인 햇살 좋은 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바로 옆에 자리한 갤러리 'Fragrance of Art(예술의 향기)'를 찾았다. 푸른 잔디 위로 모성애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는 조각상들이 반긴다. 특히 지구본을 중심으로 활짝 웃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희망'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곳은 부고 7회 주영숙 동문의 작업실이자 조각 전시장이기도 하다.
"제가 처음 조각을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4 후퇴 때 마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보냈을 때인데, 그 당시 미술 담당을 하던 조각가 김세중 선생님(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조각가)의 권유로 흙을 가지고 두상과 조각을 하게 되었죠."
주영숙 동문은 그 당시 손끝으로 느껴지는 흙의 촉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비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시골길을 걷다가 흙에 빠져 고무신이 쉽게 빠지지 않던 그 느낌과도 비슷했다는 그는 40년을 흙에 빠져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 조각에 빠졌던 고1 때의 기억은 어느새 사리지고, 대학입시를 위해 학업에 매진했던 부고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서울대 치과대학을 진학한 그는 대학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주부의 길을 걸어왔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난 후, 주부로 있기보다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밀려왔다. 다행스럽게도 교직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흔쾌히 사회 활동을 허락해 주었다.

교사에서 총장으로 이어진 25년의 교직 생활
주영숙 동문이 처음 사회 활동을 시작한 곳은 상명여중 과학 선생님이었다. 당시에는 대학교를 나오면 준교사 자격증을 주었기에 학교 교사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을 선생으로 지냈던 그는 졸업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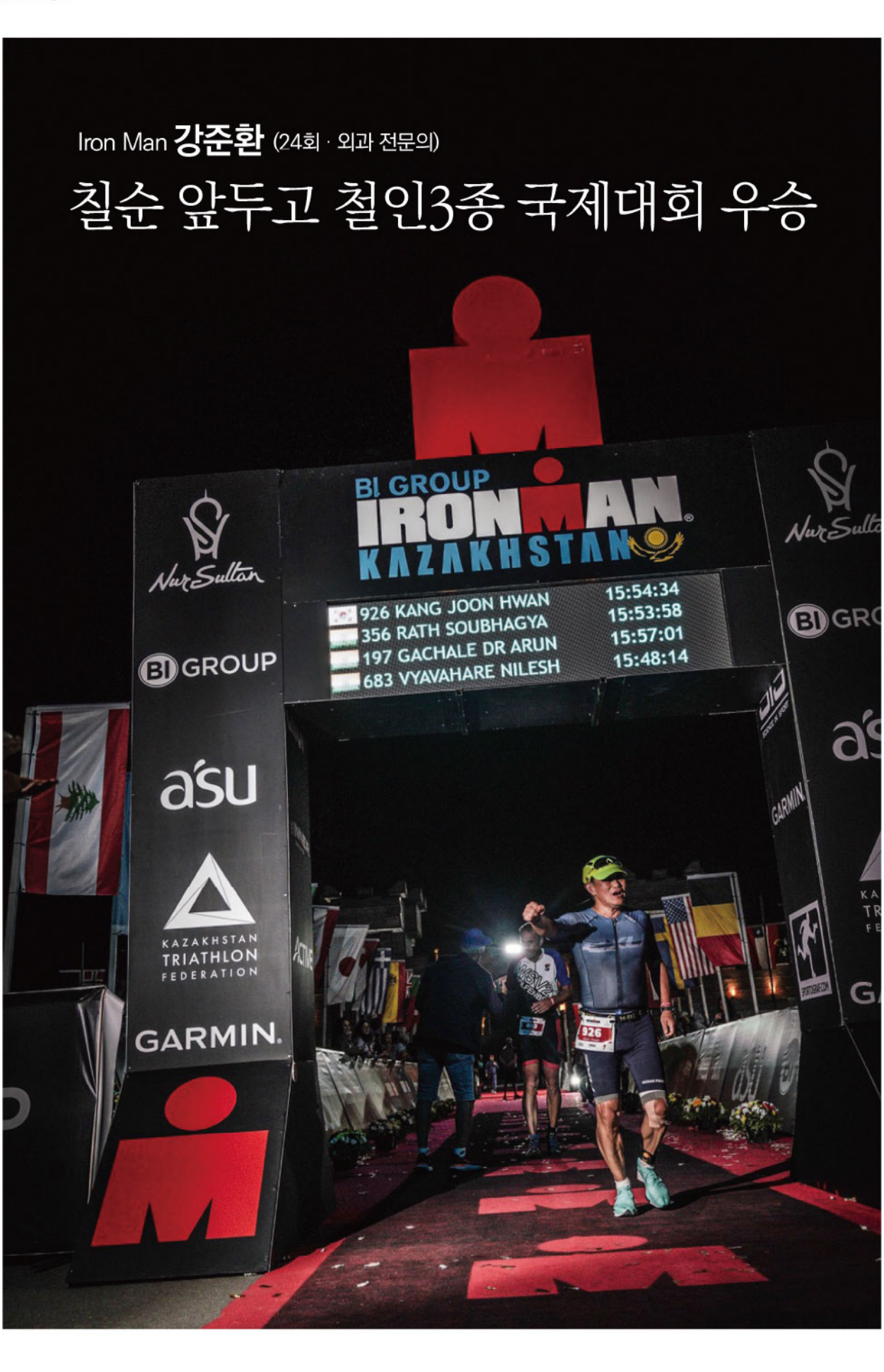
들이 '대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1기로 진학하게 된다.
대학원을 졸업 후, 마침 대학교수였던 후배가 출산으로 한 학기를 쉬는 동안 대신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5년의 세월을 시간강사로 보내던 그에게 또 한 번의 학구열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어머니에게 "가족으로부터 1년의 휴가를 주시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겠다"라는 용기도 생겨났다.
때마침, 시어머니도 정년 퇴임을 한 후라서 흔쾌히 아이 셋을 돌봐주신다고 허락해 주어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1년 넘게 공부한 끝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76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여전히 시간 강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덕성여대와 홍익대에서 대학 교수 초빙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대학 교수 채용은 공개 모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영숙 동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덕성여대, 홍익대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두 곳 모두 연락이 오지 않았다. 탈락한 것이다.
한 해가 지난 후, 다시 덕성여대에서 대학 초빙 교수 공고가 있었고, 다시 한 번 지원하게 된다.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 1년 계약이라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다시 1년 연장이라는 재계약을 했다. 교수 생활 4학기가 지나갈 무렵, 덕성여대 이사장은 미국의 교수 평가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학생들에게 교수 평가를 하는데, 이 교수 평가 조사에서 3위를 하면서 교수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학생과장, 교무처장을 거쳐 평생대학원 원장, 덕성여대 총장까지 25년을 교직자로 몸담아 왔다.

사랑과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작품 세계
교육학 전공 대학교수였던 주 동문이 조각가로 활동할 수 있던 계기는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였다. 강의 후, 우연히 예술대를 지나는데 때마침 학생들의 조각 수업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주에도 그는 그 수업을 지켜보았는데, 마침 수업을 하던 교수님이 "흥미가 있으시면 이리 와서 앉아 학생들과 함께 배워보시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고1 때의 조각을 만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0년도의 일이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통해 소소한 일상이 테마인 모성, 가족으로 시작된 작은 크기의 조각 작품을 만든 주영숙 동문. 2008년 이곳 조각공원을 꾸미면서 작은 조각 작품과 어울릴 수 있는 큰 작품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밀레의 만종'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로뎅의 키스'가 그것이다. 그리고 조각 정원의 호수 부근에는 '이야기가 있는 꽃길'이라는 제목의 조각 작품을 통해 어려서부터 아름답게 이어지는 성장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양주 조각공원은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어요. 부고 동문들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따뜻한 커피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환영합니다."

'조각은 광장의 예술이며, 햇볕에 견디는 예술입니다. 조각의 아름다움은 시간 속에서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각을 통해서 멈추고 정지되어 있는 아름다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략)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저 손 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촉감에 매료되어 말 그래도 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017. 5. 19 주영숙 – 조각공원 입구 초대의 글에서

글·사진 조용식(35회 · 편집위원)



Iron Man 강준환 (24회 · 외과 전문의)

칠순 앞두고 철인3종 국제대회 우승

BI GROUP
IRONMAN
KAZAKHSTAN
926 KANG JOON HWAN 15:54:34
356 RATH SOUBHAGYA 15:53:58
197 GACHALE DR ARUN 15:57:01
683 VYAVAHARE NILESH 15:48:14
NurSultan
BI GROUP
a'su
KAZAKHSTAN TRIATHLON FEDERATION
GARMIN

"우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24회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신청해놓았던 대회였었는데, 코로나로 금년에서야 열려 출전 했답니다. 그동안 본 직업('칼잡이')은 좀 뒤로하고 꾸준히 운동은 계속하였으나, 세월은 못 막는지 아니면 (수년전 자전거 타다 넘어져 입은) 부상 탓인지 왼쪽 무릎이 계속 시원치 않아 내심 불안한 마음을 안고 8월 초 이 곳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왔고, '그저 완주만 하자'는 마음으로 헤엄치고 자전거 타고 달렸지요. 그런데 마지막이자 세 번째 종목인 풀코스 마라톤 중 30km 지점에서 어디선가 '당신이 2분 차이로 현재 종합 선두다!'란 경기진행요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라? 내가 선두라고?' 그렇다면 하와이 챔피언 슬롯(국제 철인3종경기 참가자격)이 내게 주어지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달려, 카테고리 남성 65~69세 1위로 금년 10월 6일 하와이 경기 참가 티켓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으론 지금쯤 귀국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코비드 19 검사를 포함한 출국심사가 늦어지며 아직 비행기를 못 타고 탑승게이트 앞에서 이 카톡을 보냅니다. 꿈에나 그려보던 하와이 출전권을 가슴에 안고 히죽히죽 환하게 웃는 내 얼굴을 (같이 탑승을 기다리며 항공사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광복절 저녁 24 단체 카톡방에 전해진 낭보에 수십개 축하 답글이 달리자 올려진 '24철인'의 답글이다.
'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Triathlon)'는 한 사람이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치르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경기이다. 제한시간(17시간) 안에 완주하면 '철인(Iron Man)' 칭호가 들어간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미국 샌디에이고 해변에서 인명 구조원들이 도전적인 복합 운동의 하나로 시작한 서바이벌 테스트를, 미국 하와이 해군기지 병사들이 경기로 만들어냈다고 알려졌다. 1978년 하와이에서 첫 국제경기가 열린 뒤 프랑스 니스 대회와 함께 현재 가장 유명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되었다. 경기는 3.9km의 수영, 182km의 사이클, 42.195km의 마라톤 순서로 진행된다. 자연을 즐기며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구촌 생활체육인들도 도전하는 대표적인 동호인 경기이기도 하다. 국제 트라이애슬론연맹이 1989년 창설되었고,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하계올림픽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올림픽에서는 남녀가 각각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등 전체 51.5km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경쟁한다.
'24철인' 강준환은 항상 24회 동기들의 부러움과 경악의 대상이다. 그가 수십 년 째 수원에 위치한 외과전문병원(한마음외과) 병원장이어서가 아니다. 20년 넘게 들려오는 국내외 철인3종 경기 입상소식 때문이다. 그가 창립멤버인 '24일달회(일요 달리기회)' 남여회원들이 국내 주요 마라톤대회에서 종종 완주하고 입상도 하기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24일요 달리기회'가 수년 전부터는 '24일요 걷기회'로 점차 퇴락한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입상소식엔 모두가 할 말을 잊는다.
등산 경력 50년인 이 글을 쓰는 편집위원도, 2년 전 한라

산 정상(성판악-백록담 왕복19km)을 다녀오는데 12시간이나 걸렸다. 국내외 산행도 항상 꼴찌로 오르내리고, 총동산악회 산행에서도 항상 진행임원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지난 2년간 한라산 정상(백록담) 경유산행은 피하고 영실-윗세오름-어리목(또는 돈네코) 같은 트레킹 산행만 한다. 최근엔 주로 오름들을 찾아 오르거나 올레길을 다니는데, 오름이나 올레길도 꺼리는 동기들과 비교하며 아직 쓸만한 체력과 지구력, 인내심에 만족한다. 그러나 엊그제처럼 '24철인'의 승전보를 또 접하면 그냥 한 없이 초라해진다. 그렇다, 24회면 올해로 졸업 50주년으로 만70세를 코앞에 둔, 골밀도 감소, 낙상, 골절을 걱정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조심해야할 나이다. 그런데 작은 체구의 이 친구는 (아무리 65~69세 카테고리지만) 이번 카자흐스탄 대회처럼 (수영 3.9km를 1시간 57분에, 사이클 182km를 7시간 21분에,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6시간 13분으로 완주해) 3종목을 총 15시간 54분에 마치고 우승까지 거머쥐니, 운동 좀 하는 동기들로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언젠가 (초음파)검사 차 '24철인'의 진료실을 찾은 적이 있다. 11시경이었는데 그의 얼굴에 약간의 피로함이 비쳤다.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니, "응, 아침엔 10km달리기를 해서 그럴 거야." "뭐? 10km를 달리고 출근했다고?!" "응, 운동중독이라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달리는데, 요즘은 좀 힘에 부치지, 하하." 할 말을 잊었다. 한 번은 그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져 쇄골 복합골절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모임에서 조우했을 때 "골절부위는 잘 치유되고 있어? 요즘은 달리기나 수영, 사이클은 못하겠네?" 하니, "응, 물론 의사가 '모든 운동은 절대 금지'라고 했지, 그래도 얼마 전부터 휘트니스 센터는 몰래 다니지. 하하". 정말, 못 말리는 친구임이 틀림없다. 하긴 '의사들이 제일 못되고 말 안 듣는 환자'라는 세간의 평이 있긴 하다.
수년 전 아내의 하지정맥류 진료-수술 차 이 친구 진료실을 찾았다. 진료실 4-5곳에 의사들이 한 명씩 앉아 외래진료에 바쁘다. 수술실, 내시경실 앞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제법 보인다. '24철인'도 외래진료하랴 수술실 들락거리랴 무척 바쁘다. 언젠가 동기가 치질수술로 입원했다기에, (화성 정남면에 위치한 직장에서) 퇴근하며 멀지 않은 (수원 시청 인근) '24철인' 병원에 들렀다. (상급병실료 없이) 특실에서 혼자 휴가 낸 듯 지내고 있는 입원한 친구에게 "원장 어디 갔어? 원장실에 안 보이던데?" 하니 "응, 아까 운동하러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왔어". 그 후 동기 모임행사에서 '환자가 제법 붐비는, 좀 규모가 있는 외과전문병원인데, 원장이 종종, 특히 일주일, 열흘씩 (자전거 분해해 챙겨 비행기에 싣고) 해외로 경기하러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지?' 하니, "응, 페이 닥터들이 4-5명 있어서 문제없이 잘 돌아가. 의사, 간호사들 월급주고 병원 운영비와 세금 제하면, 내 앞으로 남는 건 거의 없지만, 내가 운동에만 전념하려고 병원을 닫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서 안 되지? 지금 이 투잡 적자 인생방식에 만족해야지. 하하".
운동, 특히 극한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철인3종 경기에 대한 이 친구의 집념과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나 같은 동기들이 같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제주 올레길 트레킹도 일반인들에게는 지구력과 인내력이 제법 요구된다. 특히 코스가 읍내를 통과해 노선버스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버스에 올라 숙소로 돌아가 샤워하고 쉬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 때 (15시간을 헤엄치고 자전거 타고 마라톤 뛰는) 이 친구가 머리에 떠오르면 한숨 한 번 몰아쉬고 그냥 계속 걷게 된다. 이런 면에서 내게 이 친구는 경악과 부러움의 대상이자, '계속 걷기 강박을 유발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이자 비교되고 싶지 않은 비교대상이다.
언젠가 이 친구에게 동창회보 지면에 소개하겠다며 경기 사진들을 몇 장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별 반응이 없었다. '국내외 수많은 동호인이 있는 생활체육의 하나로 새로운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쑥스럽게 무슨 동창회보에 소개하냐?"며 사양한다. 금년 7월에도 '동창회보에 실릴 인터뷰 겸 밥이나 한 번 먹자' 하니, "8월에 카자흐스탄 국제경기가 있어 준비 중이라 바쁘니, 하더라도 경기 끝나면 할게."라고 비행기에 올라 도망쳤다. 광복절 저녁에 들린 우승 낭보에 그가 꼼짝 없이 약속을 지켜야 할 여건이 됐다.
국제 트라이애슬론 경기의 최초 개최지인 하와이 경기가 금년 10월 6일에 열린다고 한다. 이 친구가 동창회보에 소개되는 인터뷰를 피해 계속 도망 다녀도 좋다. 대신 팔순을 앞둔 졸업 60주년에도 '24회 철인'의 우승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한다. 경기 분야에 70세 이상만, 또는 75~79세만 참여해 겨루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선농문화포럼
2022년 하반기 강좌 수강생 모집

제23기 선농 인문·교양 강좌

- **강의일정:** 9월~10월 매주 목요일 / 총 9회 동영상 강의
- **담당교수:** 만화가 이원복 前 덕성여대총장 / 먼나라 이웃나라 著者
- **온라인강의:** 네이버BAND에서 '선농문화포럼'을 검색하세요!

band.us/@sunforum

BAND
선농 인문·교양 무료강좌
<선농문화포럼>
만화가 이원복 특강
<인도/인도아대륙편>
만화가 이원복
前 덕성여대 총장
'먼나라 이웃나라' 著者

〈인도/인도아대륙편〉

No	일정	과정명	No	일정	과정명	비고
1	9/1(목)	인도, 인도아대륙	6	10/6(목)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 온라인 무료 강의
2	9/8(목)	인도의 정신세계와 카스트 제도	7	10/13(목)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	
3	9/15(목)	인도역사의 특징과 영국의 침략과 지배	8	10/20(목)	네팔 연방민주공화국과 부탄 왕국	
4	9/22(목)	인도의 독립운동과 분단	9	10/27(목)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5	9/29(목)	인도 공화국				

제5기 썬포럼 영화제

coda
코다
벨파스트
the straight story
A RIVER RUNS THROUGH IT

- **일시:** 10월 매주 목요일 14시~17시
- **장소:** 사대부고 동창회관 3층 선농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 1번출구 앞)
- **강사:** 김현숙(27회) 영화평론가 / 前 시사저널 문화부장

No	상영일시		영화	비고
1	10/6(목)	14:00 ~ 17:00	코다	무료 상영
2	10/13(목)		벨파스트	
3	10/20(목)		스트레이트 스토리	
4	10/27(목)		흐르는 강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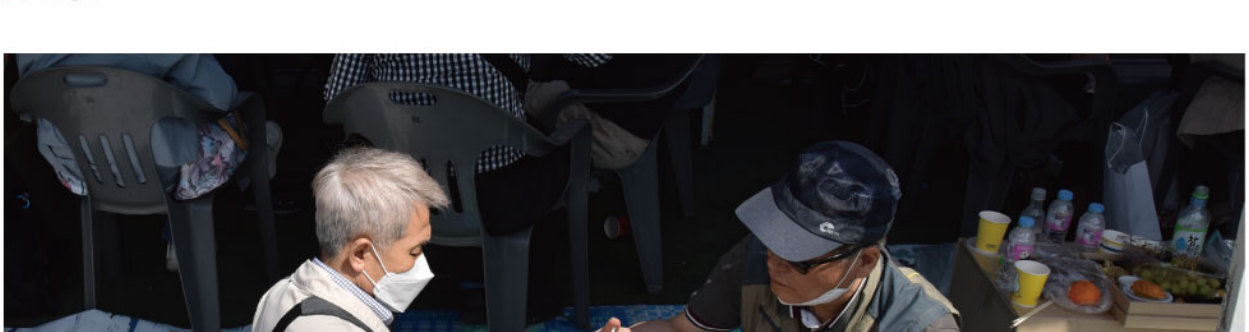
제4기 요가 무료수강생 모집

- 요가 지도자 자격증
- 2018년 국민건강본부 서울지역본부 어르신지킴이 우수강사상

담당강사: 한수진

일시		내 용	비고
9/6(화)	19:30 ~ 20:30	1. 요가란 무엇인가?	※비대면 무료강의 (ZOOM)
9/8(목)		2. 기본 호흡법과 준비아사나	
9/13(화)		3. 등구르기 / 등,허리근육 이완	
9/15(목)		4. 척추강화동작	
9/20(화)		5. 골반교정동작	
9/22(목)		6. 상체순환동작	
9/27(화)		7. 전신근력운동	
9/29(목)		8. 신장강화동작	
10/4(화)		9. 다이어트 요가	
10/6(목)		10. 수정 요가	
10/11(화)		11. 유연성강화동작	
10/13(목)		12. 전신신장동작	

※ 교육과정 운영안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Tel** 02-2233-7871 **e-Mail** sunforum@daum.net **홈페이지** www.sunforum.org



금년 5월 선농축전(24회 천막)에서 진료 · 시술 모습

떳다방! 한의원 **정호영**(24회·아름다운 삼산한의원 원장)

24회 모인 곳엔 '떳다방 한의사'가 있다

올해로 졸업50주년인 24회 졸업생 중 좀 별난(?) 인물을 찾아 인터뷰해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원래 24회를 대표하는 기인은 20년 경력의 철인3종 경기 매니아 외과전문의여서 그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8월 카자흐스탄 철인3종 국제경기 참석 준비로 바쁘다가 출국해버려 만날 수가 없었다. 다행히 편집위원장이 지난 선농축전 24회 천막의 '떳다방! 한의원' 사진에 관심을 보였기에 24기 모임과 행사마다 진료가방을 챙겨와 봉사하는 좀 별난 한의사를 소개한다.

"서귀포 해변 언덕에 자리한 리조트 정원에서 저녁노을 보며 뷔페 회식이라, 좋네 좋아. 근데, 김00는 어디 있지?"
"저기서 게걸스럽게 먹고 있잖아, 왜?"
"어제 공항에 내렸을 때 '요즘 위가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며 저녁 늦게 내방에 와서 침 맞고 갔거든, 근데 저 친구 엄청 잘 먹고 잘 마시네?…"
"120명이 졸업40주년 여행 온 여기 제주까지 와서도 '떳다방! 한의원' 차렸다고?"
"항상 하던 건데 뭐."

그렇다. 24회 7반 420명중엔, 사업가, (해군제독 포함)장성급 군인, 엔지니어, 항해사, 회계사, 세무사, 목사, (해외)선교사, 교사, (사대부중)교장쌤, 교수,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간호사 같은 의료인 등 다양한 전·현직 직업인들이 있다. 법조인은 없고 한의사는 두 명인데 두 명중 이 친구가 좀 별나다. 최장수 최고령 동창회보 편집위원이 24회 '공식 찍사'인지라 거의 모든 행사와 모인에 참석하다보면, 이 친구가 동기들 앉혀 놓고 진맥, 침 시술, 눕혀 놓고 뜸, 부항 시술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사진). 숙박하는 행사엔 묵직한 진료가방까지 들고 온다. 보통은 저녁식사 후 모두들 휴식할 때 숙소 방 하나가 진료실로 변신하고 3-4시간 동안 진료가 진행된다.
이 친구가 또 산악회원이라 동기 산행에선 도봉산 북한산 능선이나 계곡 물가 바위가 야전 한의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수년 전 계룡산에선 발목을 다친 등산객을 침술 처치하느라 늦어져 어둑어둑해서야 하산해 막차로 겨우 귀경한 적도 있다. '산악회 모임의 의사는 회원들의 건강과 안위를 담당하지만, 산에 왔다가 다친 낯선 사람도 도와야 하거든?ㅎㅎ' 이런 투철한 직업의식이다.
외과의는 밝은 조명의 수술실이 필요하고, 산부인과는 초음파 영상장비와 태아 심박동 측정기가 갖춰진 분만실이, 피부과의사는 레이져 시술 장비라도, 치과의사는 엑스선 촬영기, 치아 절삭기, (타액)석션기 같은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각종 기본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의사는 어디든 진맥을 위한 손(가락)과 침술을 위한 바늘이 담긴 작은 바늘 통, 그리고 중고교 6년을 함께한 동기들 건강을 위하는 착하고 섬세한 측은지심이면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동 진료, 야전 응급시술을 위해선 아주 적합한 의술이다. 이번 가을 24회는 경주로 졸업5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온다. 이 친구 숙소에서 몇 명이 무슨 진료를 받는지 사진으로 담고 관찰할 좋은 기회다.

"한의원 이을 사위 구합니다"

자신의 소개 먼저 부탁합니다.
"의정부 회룡역 근처 〈아름다운 삼산한의원〉 원장 한의사 정호영입니다."

어떻게 한의사의 길로 들어섰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 3 때 (증조부에 이어 한의원이셨던)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네가 내 뒤를 이어 한의사가 되어야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반 대학으로 진학했고 졸업 후 취직한 직장도 잘 다녔죠. 그러나 '증조부로부터 이어온 백년 가업의 명맥을 끊을 수 없다'는 할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에 서른을 앞둔 나이에 한의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한의대는 경희대(서울), 원광대(익산), 동국대(경주)에 있었는데 동국대를 선택했습니다.

한의학 의술은 대학에서만 배웠나요.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이론 위주로 배웠고, 진맥, 침, 뜸, 약제 처방 같은 실질적인 전통 한의학 의술의 스승은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 한의원에서 보고 듣고 보조하며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술을 배웠습니다."

현대 한의학을 대학에서 서양의학이 포함된 방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조부 한의원에선 전통적인 조선 한의학 의술을 익혔을 텐데, 신·구 한의술을 동시에 익히며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 혈당측정기, 엑스레이, 초음파, CT를 비롯한 영상의학을 서양의학에서 받아들여 한방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가르치는 현대 한의학 대학교육의 정통성, 효용성을 할아버지께서는 그리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의학에 서양의학을 접목시키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의학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동서양 의술의 협진을 시도하는 대안(代案)의학 의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의 명상과 참선이 만성질환 치료법으로 관심을 끌고 침술의 효용성이 주목받았죠.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통의학도 진료, 투약, 시술에서 서양의학, 특히 영상의료기기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외상이나 악성종양 제거 수술엔 물론 서양의학이 실효적입니다. 그러나 당뇨, 혈압, 간질환, 비만, 우울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동양의학이 더 우수할 수 있음은 반세기 전 서양 의학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양의사와 한의사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입장보다는 보다 열린 생각으로 동서양 의학간의 분야별 협진이 바람직합니다."

MT에서도 침술(위), 도봉산행 정심식사 중에도 진료(아래)

서른에 한의사의 길로 들어선 지 40년인데, 보람은 있나요.
"환자가 잘 치료되었을 때 보게 되는 감사 표시와 환한 웃음이 큰 보람이죠. 원인 모를 화병으로 고생하던 40대 과부 환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밤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를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던 그 여성이 (외조부한테 전수 받은) 화병 처방 치료약 한 제 먹고 치료되어 몇 년을 잘 지냈습니다. 그 후 서너 번 재발하긴 했어도 계속 치료되며 찾아왔고, 유복자로 키운 아들과 손자들도 30년 째 저를 찾아오는, 대를 이은 가정(한)의로 신뢰받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성공적인 치료 사례도 더 소개 하자면.
"불임치료입니다. 서양의학 대학병원에서 불임으로 최종 판정받은 여성인데, 한약 2제 복용 후 아들을 둘이나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불임 환자는 비만치료 후 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치유되면서 임신까지 성공해, 환자도 행복하고 저도 보람 있었고요. 그 외에도 방광이 망가져 평생 소변줄 낀 채 살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은 할머니 환자가 제 의원에 와 치료 한 달 만에 소변줄을 제거한 사례 등 40년 동안 기억나는 치료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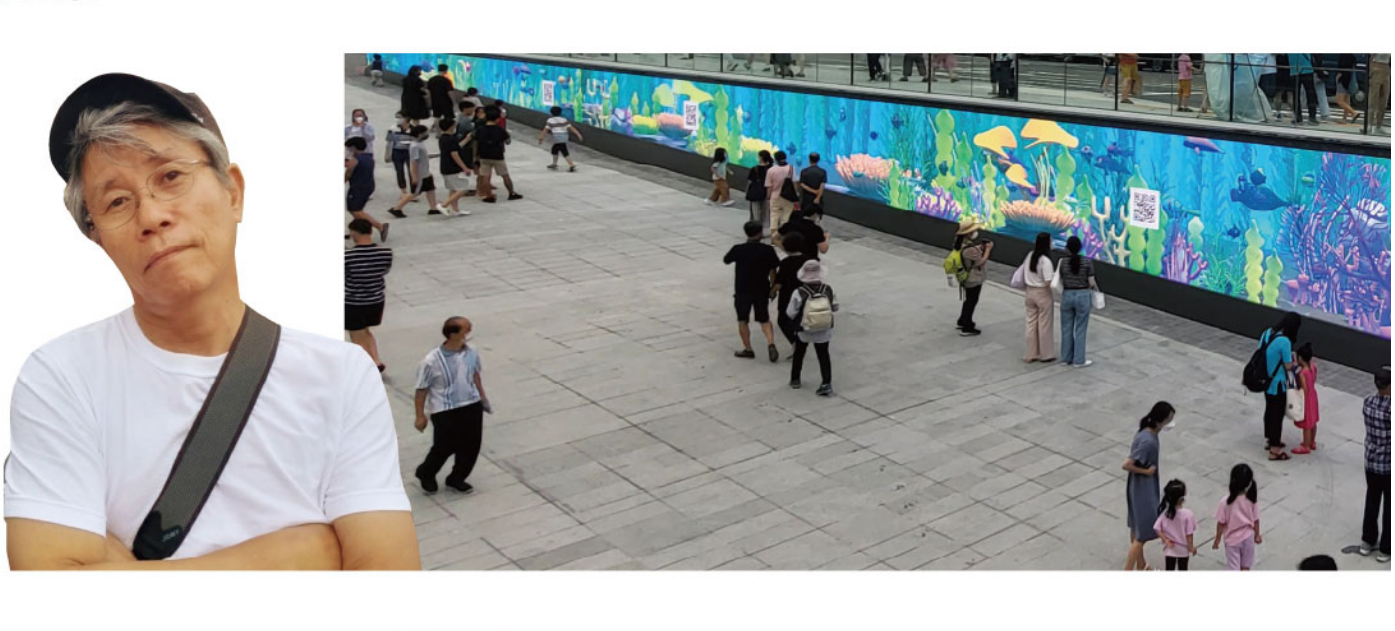
한의사로 중요한 치료 원칙이나 직업 철학이 있나요.
"'정직, 근면, 측은지심을 가지라'는 (역시 한의원이셨던)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100년 3대를 이어온 가훈이자 직업윤리지요. '병은 마음과 몸을 같이 다스려야하고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와 같은 치료 원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관지)와 피부와 소화기 장상태가 서로 연관되어있다.' 같은 진단 및 치료이론입니다. 서양의학은 아직도 동양의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지만,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한 철학의 우수한 의술이고, 수천년의 경험과 임상자료에 의한 과학이며 심리학 같은 인문학과도 연계된 실용학문입니다."

한의원과 한의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나요.
"아쉽지만 3대를 이어온 한의원 가문의 전통은 나 이후로 대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슬하의 딸 둘은 한의사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의술)을 물려줄 한의사 사위를 얻는다면 해결 될 수도 있어 구하는 중입니다. 이 인터뷰 글을 보시는 선후배 동문님들이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ㅎㅎ"

24회 동기들 각종 모임에서 남녀 동기들을 진료해왔는데, 계속하는지요.
"한의원을 언젠가 접더라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동기들 모임에서 '떳다방 한의원'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칠순을 앞두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동기들 모습이 눈에 더 들어오니까요. 내년 선농축전에서는 (주최 측에서 진료천막을 하나 제공해 주면) 한의사 선후배 동문들과 일일 무료 상담진료소를 시범운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24회 '공식 찍사'이자 최장수 최고령 편집위원님? 코로나19로 2-3년 자주 못 본 동안, 등이 좀 구부정해졌네? 이리 와서 윗몸 좀 벗어봅시다. 간호사!, 침과 뜸 시술방 준비 해 주세요!"

글·사진 정교철(24회·편집위원)

www.ELTOWER.com
엘타워, 최고의 연회를 빛내다
39,202회
연회행사 개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한
39,202번의 연회, 60만 명의 누적고객
품격의 신뢰까지 높인 엘타워,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연회를 선보입니다.
닛산 / 마이크로소프트 / SFAA 서울 컬렉션 / 인텔 /
예약·문의 02-526-8600~4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EL TOWER 엘타워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앞 위치



광화문광장 총괄설계자 **진양교**(27회)

시민이 좋아하는 광화문광장 연출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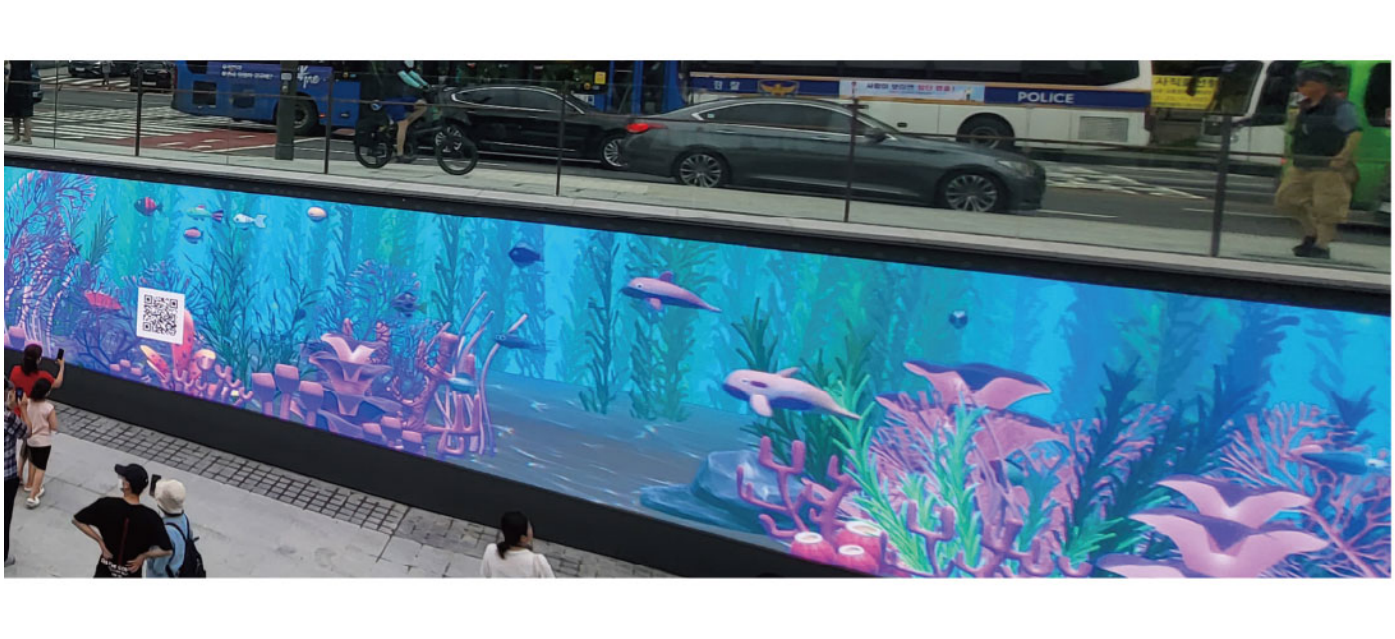
진양교(CA조경기술사 대표) 동문은 우리나라 조경학계의 일인자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롯하여 지난 45년간 약 1천5백 개의 국내외 프로젝트를 맡아 설계를 하고 토목을 이끌며 한국의 공공조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마친 진양교 대표를 성수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광화문광장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 조성설계 국제공모전〉에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마스터 아키텍트(MA)로서 진두지휘했지요. 소감은?
감개무량합니다. 광화문광장은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발주 받은 사업이지만 한국의 공간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지요.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청계천에 비해 수월한 편이었는데도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시작했던 일을 오세훈 시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내고 나면 모든 시민이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실무자들의 팀워크입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지라 박원순 시장은 3번 정도 포기하려고 했고, 오 시장도 취임 후에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제가 두 분 앞에서 여러 번 피칭 했는데 그때마다 '저의 확신'을 강조했고 결국에는 받아들여졌지요… 진희선, 서정협 당시 부시장들도 지지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의 결단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어떤 점에서 모든 시민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일상과 비일상이 공존한다는 점, 그리고 광장이 공원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광장이 한쪽으로 붙으면서 30미터 폭의 큰 숲이 생기고, 물도 보고, 그늘에서 책도 보고, 휴식하고 힐링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청계천 때 제일 흐뭇한 것이 물을 끌어들여 시민들이 물길과 나란히 길을 수 있게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물하고 가깝게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축이자 조선제일의 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기를 되살렸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건축주는 서울시이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는 그 주인들이 사랑해줄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노들섬, 한강 르네상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수많은 공원 및 광장, 도시 설계, 주거단지, 현상설계를 해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약관의 나이(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첫 작품을 낸 이후로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애착이 커요. 거기 하늘공원의 소탈한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목천의 독립기념관도 좋구요.



청계천이 복원된 것을 보고 해외에서 하천설계나 복원설계 의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경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세계적인 수준에서 약 1,2년 정도 뒤처진 정도라고 봅니다. 중국이 5, 6년 정도 뒤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조경이 늦게 들어왔지만 하버드나 유펜, 일리노이 등 조경의 명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귀국하여 단시간에 수준을 끌어올렸어요.

조경사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디자인 쪽에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권합니다.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조언하자면 우선 학부에서는 건축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조경을 공부하여 '건축을 잘 아는 조경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랫동안 봉직하던 학교(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는 올해 정년퇴직합니다. CA조경의 대표지도 3년 동안은 안식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연필잡고 선 긋고 설계하는 대신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오랫동안 구상해온 공상과학 소설도 쓰고, 전공 외의 서적도 실컷 읽어야겠습니다.

진양교 대표는 공학과 문예에 걸쳐 재능을 타고 난 르네상스맨, 다빈치형 인간인 것 같다. 소설을 써서 교수신문에 발표한 적도 있고, 남성합창단(린덴바움)을 창단해 이끌고 있다. 그의 시나리오가 영화화 되는 날도 곧 올지 모른다.
27회 동기들을 음악회에 초청하기를 즐기는 그는 광화문에도 동기들을 안내하여 설계와 토목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발굴된 문화재의 뒷얘기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글·김현숙(27회·영화평론가)

유튜브 채널 '냥신TV' 운영자 **나응식**(49회 · 수의사)

애묘인들의 워너비 '냐옹신'이 저예요

고양이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묘인들의 워너비, 냐옹신, 거대고양이로 불리는 '고양이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수의사 나응식 원장을 만났습니다. EBS 〈고양이를 부탁해〉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 '냥신TV'를 통해 애묘인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로를 수의사로 삼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꿈이 확고하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도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오래 갈등했었어요. PD와 같이 콘텐츠 제작이나 연출하는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연극부에서의 기억이 좋아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는 것도 고려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척 많았고, 재학 시절 내내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대학 원서도 다양하게 지원했습니다. 수의대뿐만 아니라 예술종합대학교와 종합대학의 연극영화과에도 지원했었어요. 그중 수의대를 지원하게 된 건,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생물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생물과 연관성이 있는 진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반 친구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도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놀고 행복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고, 직업으로서의 수의사가 제 성향과 제가 좋아하는 과목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냐옹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가 가는 고양이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모든 동물을 주제로 공부했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동물의 구분 없이 임상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의사 일을 시작했던 2002년쯤에는 현재와 다르게 고양이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물병원도 90% 이상이 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더불어 고양이 진료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양이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매력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좋아져요. 그렇게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양이를 만나보셨을 텐데, 행동을 교정하거나 진료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세요!
문제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아이와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문제행동을 보이면 보호자님이 무척 불행해지게 됩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생활하던 가정이 당장 떠오릅니다. 두 고양이가 심하게 싸웠어요.
보호자님의 입장에서는 자식 두 명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님께서 공황이 오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고양이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도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고양이도 사람처럼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신경안정제 처방을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보호자님을 교육하고 환경도 개선해서 2개월 정도 만에 고양이들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보호자님도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치료하고 돌보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양이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보호자님이 행복해지는 것도 무척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애묘인들의 필수 구독 유튜브 채널, '냥신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또,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저는 초창기부터 유튜브를 즐겨보았는데, '고양이'라고 검색하니 고양이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영상들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채널이 없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의사가 직접 나와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고양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수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냥신TV'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에 사용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고양이 관련 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어서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저의 실제 진료 경험과 연결 지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내용 면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전달하는 방식과 영상의 구성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한때 PD를 꿈꿨을 정도로 연출과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영상을 볼 수 있을지 고민해서 콘텐츠의 구성과 전개 방식을 결정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구독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새로운 도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각자의 진로로 고민하는 부고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빠른 실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심했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실행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열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하고 싶은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어떤 갈래로 도전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행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만해도 동물병원이든, 유튜브든 잘 안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결과들이 실패가 아니라 양분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인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경험이 있습니다. 부고 후배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다양한 도전으로 많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김제나(73회·편집위원)

이노션 광고감독 **홍세훈**(4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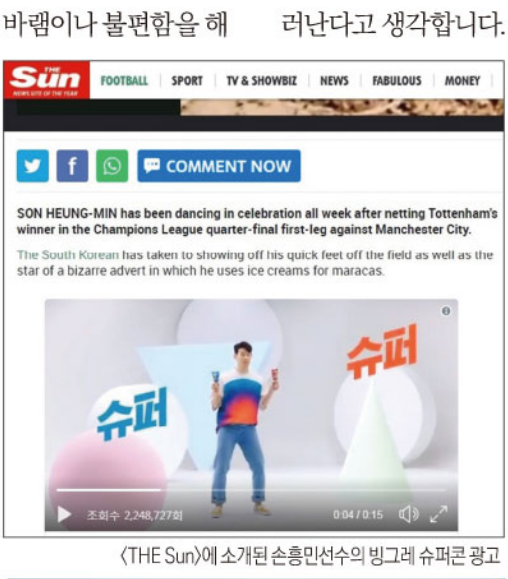
손흥민 광고 제작 '뿌듯'…영국에도 소개

광고에 대한 심을 가진 시기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딱딱한 정보전달 위주의 광고에서 세련된 브랜드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수능을 볼때면, 꼭 중앙대 광고홍보학과에 지망을 했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된 적은 없어요)

광고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많은 이력서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지만, '특기'란을 채우는 것이 저에게는 늘 도전이었는데요. '내 특기가 뭐지.', '딱히 특기는 없는 거 같은데….'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호기심 가지기'라고 채워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고인으로서는 좋은 관점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통찰력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안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어떤 분야의 광고인이 되든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든 광고 중 인생 광고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손흥민선수와 함께 했던 '빙그레 슈퍼콘' 광고입니다. 사실 인생 광고라고 할만큼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광고이고 밈으로까지 만들어졌던 광고이다 보니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실 것 같고요. https://youtu.be/mqPWzYA3yJ4
슈퍼콘은 월드콘, 부라보콘, 구구콘이 독점하고 있던 콘 아이스크림 시장에 야심차게 등장한 신제품인데요. 신제품이다 보니 무엇보다 임팩트있는 광고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손흥민선수를 캐스팅하며 처음 광고를 기획하며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선수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목표였고 여러가지 안 중에 손흥민선수를 한번 춤을 추게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며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선수가 춤을 그렇게 잘 추시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있게 임해주시면서, '주급 수십억원의 손흥민선수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데 우리도 열심히 살자'라는 교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주었죠.^^;;
이 광고는 영국 'The SUN'에 소개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슈만큼이나 슈퍼콘도 전년대비 2배가 넘는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슈퍼콘은 성공했지만, 손흥민선수에게는 흑역사가 된 광고였죠. (이 자리를 빌어 슈퍼콘 손흥민선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광고 이후로는 손흥민선수는 다시는 춤을 추는 광고는 찍지 않겠다 선언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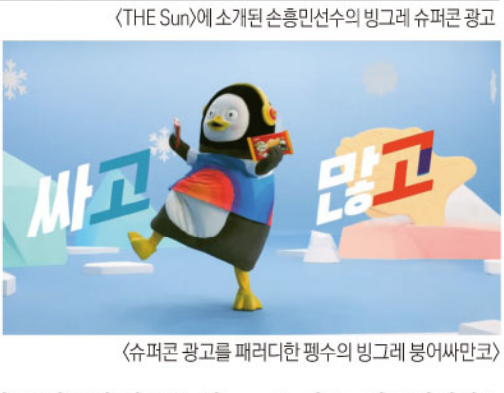
홍세훈에게 광고란?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의 니즈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니즈(unmet needs)를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업만 이득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즉 광고를 통해, "아쉬웠었는데… 불편했었는데… 해결이 되겠네."라는 인식이나 "아 미처 몰랐는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불편함이었구나!" 등의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초에 기획, 제작한 불스원샷 광고의 경우에도, 내 차의 엔진을 관리를 하고자하는 니즈와 엔진 관리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카센터 가야할 것 같은 부담감이라는 인식의 충돌이 "엔진관리는 셀프"라는 카피로 통해 손쉽고, 간편하게 엔진관리를 할 수 있는 불스원샷으로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https://youtu.be/efOD2QG1WAM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삶을 파고들어 공감가는 광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광고가 귀찮은 존재가 아닌, 일방적인 외침이 아닌, 소비자의 삶의 어떤 바램이나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작동하길 바랄뿐이죠.



SON HEUNG-MIN has been dancing in celebration all week after netting Tottenham's winner in the Champions League quarter-final first-leg against Manchester City.

The South Korean has taken to showing off his quick feet off the field as well as the star of a bizarre advert in which he uses ice creams for maracas.

〈THE Sun〉에 소개된 손흥민선수의 빙그레 슈퍼콘 광고



〈슈퍼콘 광고를 패러디한 펭수의 빙그레 붕어싸만코〉

광고는 크리에이티브 세계다. 100세 시대에 동문들이 크리에이티브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타고난 성향이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싫증을 잘 내곤 했죠. 소위 넓지만, 얇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때때로 깊이가 없다는 것, 무언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 끈기있게 한 분야를 파지 못하는 제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인은 오히려 이런 얇고 넓은 스타일이 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의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만 깊게 파지 않습니다. 물론, 한 브랜드의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브랜드들을 다루기도 하고, 매년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기도 하는 업의 특성으로 여전히 저는 넓지만 얇습니다. 지금도 저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모험심이 강하죠. 광고라는 업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른 시장상황, 소비자, 그리고 경쟁브랜드들 사이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내는 모험인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삶이란, 바로 이런 모험가의 삶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여전히 가보지 못한 곳도, 모르는 분야가 차고 넘치거든요. ~

부고 동문 기업인들이 광고하고 싶을 때 꼭 챙겨야 할 팁?
광고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보니,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 처럼 좋은 광고는 분명히 티가 납니다. 쉽게 만들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느냐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으로서 광고를 만들고자 하며 광고대행사를 찾으실 때는 해당 광고대행사의 '진정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행사가 내 브랜드를 정말 자기 브랜드 처럼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해줄 것인가?' '나 조차 몰랐던 소비자의 숨겨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런 판단의 과정을 생략하시고자 하신다면,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인이 되고 싶은 후배에게 한마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고등학생 시절 광고인을 꿈꿔왔습니다. 그때는 광고인이 되려면 광고홍보학이나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야한다는 단순한 생각들이었는데요, 광고인이라는 단어속에는 참 많은 직업들이 담겨져있습니다. 저 같은 광고기획자를 포함하여, 광고주, Creative Director, Art Director, Copywriter, PD, 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아트실장, 편집실장, 2D/3D 작업실장, 모델에이전시, 미디어플래너, 미디어바이어, 미디어사, 렙사, 소비자조사 등등 모두 광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인의 세계는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의 성적이나 갈 수 있는 대학교 등등을 따지며, 광고인이라는 꿈을 접기에는 매우 이릅니다. 오늘 이 글이 계기가 되어, 광고인의 넓은 세계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재학생 후배님들에게는 따로 광고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노션 비즈니스4본부 5팀 홍세훈 팀장
honggun@innocean.com

한국의 자랑 한글이 울려 퍼진다

김 태 련 (8회 · 아이코리아 이사장 ·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탄생한 나라 가운데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이런 일을 이룬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에 수학능력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를 필수선택 외국어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지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80여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 지표 2018'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제와 인구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07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하며 한글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한국어의 위대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80여개 정도인데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 UN에서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2010년에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2012년 UN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각각 대한민국 송도에 세워 한국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발전적인 모습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만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낸 성과를 우리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좋은 전통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통계에 따르면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67달러였으며, 문맹률이 80%가 넘어선 최빈국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30,000달러이고 경제대국 10위권 가까이에 들어섰으며,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IT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75톤급 이상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

가로 2018년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시험발사했다. 이후 2021년 10월에 누리호 첫 발사를 시도했으며, 이때에 얻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에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우주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은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몇 해 전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Wembley Stadium)에서 공연한 가수 방탄소년단(BTS)을 보며, 외신은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룬 가수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 공연장에 모인 6만 관중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수록 앞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1995년 본인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학원 교육과정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가장 많은 전공이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축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하며,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1. 한국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달라진 한국의 모습과 한국의 위상을 바로 파악하면서 한국을 바로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다.

2. 무엇보다 교사들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먼저 학습하고 변화된 교육방식을 지식해야 할 때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07년에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이후로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우리는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디아스포라(Diaspora)를 가진 나라이고 이들은 현재 전세계 180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발전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예로 3,000개의 언어를 가진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문자가 없을 경우 한글을 도입하여 그 국가의 성경책을 만든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한국어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한 교육 · 격려 · 지원이 필요하다.

4. 4차 산업시대와 AI시대가 도래하였으니 이 시대에 맞는 선두주자를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내가 즐겁게 잘 하는 것을 찾는 자 만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주입식 교육,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 스스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AI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경쟁력은 인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난 반면,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복지 및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학습 및 교육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한다. 아이들의 경우 자라면서 공동체 생활로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타인과의 협동이 더욱 줄어들어 배려와 협력의 자세가 부족해지고 있음에 인성 교육의 중요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여러 능력 중에서도 바른 인성을 갖춘 것이 경쟁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는 것이며, 그 중심에서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인성 교육이기에 생명 존중 사상, 이웃에 대한 배려, 양보와 질서 교육, 실천적 봉사활동 등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문이 열렸고
신세계가 펼쳐졌다

김 동 진(19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모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었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지만,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헬스 트레이닝을 했었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그리고 근력운동 등을 하면서 습관처럼 그렇게 헬스 트레이닝을 했었다. 그건 나의 자긍심이 되어 헬스 트레이닝이 끝나고 사우나를 하면서 저절로 휘파람을 불 정도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이 되어,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처럼 그렇게 매일 반복했었다.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다.
"매일 헬스장을 나가는 덕분입니다"
그렇게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고, 그 습관은 죽는 날까지 계속 되리라고 오만방자한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나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멈추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속도를 8Km/hr로 줄여도 여전히 숨이 찼고, 6km/hr로 줄여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이내 힘이 들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아침 좌절하면서도 노화로 인한 포기라고는 인정하지 못해서 며칠 후면 다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달릴 수 없었고, 수많은 헬스 기구 중 러닝머신만 달릴 수 없음에도 모든 헬스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헬스장에서 처음에 시작하던 러닝머신 달리기를 빼버리고 다른 근력운동을 한다는 일이 갑자기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힘들어하는 노인네가 오래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평생회원으로 등록된 그곳에 들어갈 때면 도대체 내 나이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가,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포기한 것들을 곰곰 떠올려 보았다. 골프 라운딩을 가면, 18홀 내내 걷던 일도 포기하고 나도 모르게 카트에 앉아 버리는 나, 골프 풀 스윙을 포기하고 하프 스윙으로 대치한 나, 웬만한 계단을 걷던 습관도 버리고 승강기 앞에 서 있게 되는 나, 손주들이 안아 달라고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게 주춤하는 나, 맛있는 음식 조금만 더 먹고 싶어도 탈날까 두려워 슬그머니 수저를 놓아버리는 나, 친구 만나 한 잔 찐하게 하고 싶어도 건강먼저 떠 올리게 되는 나…….
수많은 포기를 나이라는 숫자 앞에서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절망적인 포기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혈기왕성하고 역동적인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작고 느리고 소박한 한쪽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 작고 소박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헬스장에 가던 시간에 양재천을 걸었고, 대모산을 걸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혼자서 좋아하던 클래식을 듣다가 아파트 창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좋아 보여 조금 걸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양재천을 걸으면서 작은 생명들이 언 땅을 밀고 나오는 경이로움이 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봄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양재천 시냇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에 눈이 갔다.

바라본다는 일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바라보면 자세히 보게 되고, 자세히 보면,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귀함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는 작은 생명들과 조금씩 조우하게 되었다. 작은 꽃들과 잡초, 이름 모를 나무들, 새소리, 청솔모, 다람쥐에게 눈과 귀를 열기 시작했다. 작은 생명들을 사진에 담아서 이름을 알아간다는 일이 이렇게 경이로운 일과가 될 줄 몰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아직도 겨울 나라로 날아가지 않고 양재천에서 헤엄치고 있는 청둥오리 두 마리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른 봄, 무채색의 산들 속에서 연한 노란 색으로 꽃을 피우는 생강 꽃을 사진으로 담고, 냄새를 맡아보고, 생강 냄새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었다. 생강꽃과 산수유가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살피고, 생강꽃이 산수유꽃 보다 수술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른 봄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생강꽃과 산수유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은 대모산을 걷다가 길가에 노란 꽃을 발견했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 민들레가 피는 계절도 아닌데, 노란색으로 다섯 장의 꽃잎을 애처롭게 달고 있는 키 작은 여린 꽃을 발견하고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 와서 인터넷을 뒤지고 뒤진 끝에 그 꽃 이름이 복수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노란색으로 밝아옴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작은 기쁨의 소박함에 나도 놀라고 있었다. 이런 작은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산수유가 지면 진달래가 핀다는 사실도, 진달래가 지면

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했나, 속으로 곰곰 생각해보니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떠올랐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그것도 성인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간지러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 단어를 요즘 참 많이도 사용하는구나 싶어 혼자서 웃기도 했다.

청솔모는 잡식성이라 곤충, 들쥐도 서슴지 않고 잡아먹는다는 사실과 다람쥐는 초식성이라 도토리와 나무 열매만 먹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람쥐는 머리가 나빠서 도토리를 늘 어딘가에 숨겨 놓는 습성이 있어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로 야산에는 도토리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세상이 한꺼번에 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작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다른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도 초여름 녹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대모산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여린 녹색 파스텔 톤으로 물들던 대모산은 벌써 짙은 녹색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 짙은 초록 나무들 사이 어디엔가 5월에 피는 어여쁜 연분홍 산철쭉이 수줍게 피어 있을 대모산으로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걸어간다.

미음완보(微吟緩步),
나지막한 노래 한 자락 읊조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길가에 핀 이름도 모르는 잡초에 달려 있는 작은 꽃송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걷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

개나리와 벚꽃, 목련이 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봄볕 가득한 양지바른 대모산에 무리지어 피어 있는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에 한참을 서성거리기도 했고, 산딸나무 꽃을 자세히 살펴보니, 흰색 큼지막한 꽃잎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산철쭉의 연한 분홍색의 귀품, 그리고 오동나무의 보라색 꽃이 봄밤 가로등 아래에서 보라색 별이 되어 하늘을 수놓고 있는 풍경도 혼자 보기 아까워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꽃을 사진 찍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러한 일은 분명 사진작가가 하는 일쯤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생경스러운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야 한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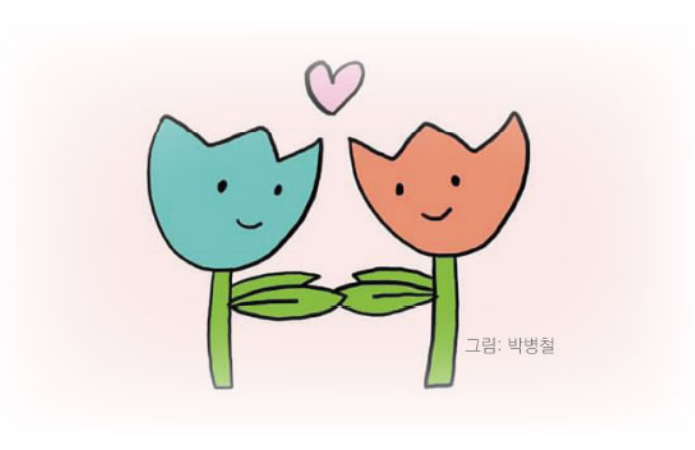


그림: 박병철

● 기고글

술 빚는 집 아들 수의사 … 훈장 출신 화가 … 은퇴 엔지니어 두 귀농인

4명의 동기들이 치악산으로 간 까닭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에 걸쳐 국립공원 치악산이 있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명산으로 차령산맥 줄기로 이어지는 영서지방 대표적인 산이다. 구룡사, 국형사, 상원사, 영원사 같은 유명 사찰도 많아 사찰 관광객으로 붐빈다. 최고봉 비로봉(288m)은 등산객들에게 도전의 대상이다. 이 신령스런 산 자락에서 활달히 세월을 낚으며 칠순이나 은퇴를 모르는 천하부고 24회 네 사람을 소개한다.

수의사 최준표는 횡성군 치악산 자락 안흥면이 고향이다. 부친이 양조장을 운영한 지방 유지의 아들로 서울로 와서 수학하였다. 수의학을 전공하여 동물병원 개업도 하였고 (명문고로 유명한) 파스퇴르 유업이 횡성군 둔내면에 공장을 설립할 때, 공장장으로 저온 살균 우유를 처음 개발하여 국내에 알렸다. 최근에는 가축 분뇨 처리와 연계한 에너지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동창회 부회장으로도 봉사하며 깊은 동창회 사랑을 실천했다.

화가 김경희는 교대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하였다. 감악산 자락에 살다가 여러 해 전 치악산 계곡 원주시 신림면으로 옮겼다. 교사직에서 은퇴하고 그림 그리기에 매진, 현재 미술동호회 '원주 어반 스케치' 회장을 맡고 있다. 선농미술인회를 비롯한 여러 동호회 활동과 개인전으로 주목 받고 있다. 10년 넘게 연마한 아코디언 실력도 대단한 팔방미인 '재원(才媛)'이다. 동창회 행사 장소가 전국 어디든 마다 않고 항상 참석한다. 구순을 넘긴 부친을 극진히 모시고 계절마다 자동차로 전국을 유람하는 소문난 효녀로도 동기들 내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농부1 송영훈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LG전자 연구소와 외국 회사에서 근무했다. 은퇴 후 강릉에서 살다가 몇 년 전 횡성군 안흥면에 농장을 구입해 농업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매사에 호기심이 가득하고 연구하는 마음이 강한 농부여서, 특용 작물도 많이 재배하며 새로운 제품 연구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구석구석 잘 관리되고 예쁜 꽃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농장은 전자공학도 출신 농부의 세심함을 살짝 보여준다.

농부2 천준수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근무했다. 귀국 후 (해외 현장 근무 시 동경의 대상이었던) 원청 미국 회사로 이직해 미국 출장을 자주 가다가, 20년 전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갔다. 몇 년 전 (한국에 취업한 아들 핑계로) 아내와 영구 귀국했다. 횡성군 공근면에 늦깍이 농부로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텃밭에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수확하면서 전원생활의 소소한 기쁨을 매일 느끼고 있다.

위 네 명은,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생활하다 지금은 모두 치악산 자락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 연락이 없다가 졸업 50주년 선농축전에서 만나 '치악산 주민'들임을 알았다. 학창시절을 같이한 친구들이 은퇴해 치악산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기투합해 6월 첫 모임을 가졌다. 원주 중앙시장 고깃집에서 점심으로 시작된, 졸업 후 50년을 살아온 세월 이야기는 치악산 자락의 카페로 옮겨 이어졌다. 학창 시절부터 시공을 초월해 같이 여행한 시간이었다. "치악산 자락에 사는 선후배님들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글 · 천준수(24회)

NH농협카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1-C1g-07125호 (2021.08.09~2022.08.08)

우리지점 추천상품!

올바른NEW HAVE카드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국내/외 이용가맹점 0.7% NH포인트 적립
6개 영역 중 당월 이용금액 1위/2위 영역 기본적립의 3배/2배 자동적용
1위 영역 기본적립 0.7% + 추가적립 1.4% 총 2.1% 적립 2위 영역 기본적립 0.7% + 추가적립 0.7% 총 1.4%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통합 월 10회)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월 1회, 연 2회 제공)
※연회비 : LOCAL 1만 2천원, MASTER 1만 2천원
스마트적립 영역
온라인 쇼핑/배달앱 / 오프라인쇼핑/잡화 / 이동통신 / 구독 / 커피 / 편의점 / 대중교통 / 택시 / 해외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바른POINT UP카드
적립한도 없이 최대 2.0% NH포인트 적립
국내·외 전 가맹점 0.7% 기본적립
하나로가족고객 +0.1%~0.3% 우대적립
생활영역 +0.5%~1.0% 추가적립 (쇼핑/편의점·잡화/영화/커피·제과/해외/교통)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통합 월 10회)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월 1회, 연 2회 제공)
※연회비 : ₩(JCB) 1만 2천원, VISA·MASTER 1만 4천원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SOHO BAZIC카드
품격을 경험하라! 개인사업자 필수 기업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0.3~0.7% 청구할인
주요 사업경비업종 0.5~0.7% 추가 청구할인
주유/대형마트/농협판매장/온라인쇼핑/이동통신/의료/골프/전기/미용재료/차량정비/해외
※연회비 : LOCAL 1만원, MASTER Platinum 1만5천원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외이사 노용오(33회 동기회장) 010-7676-6476

홈페이지 card.nonghyup.com
카드고객상담센터 1644-4000
영업점 연락처
중앙농업협동조합 ☎ 02-3437-9140

● 회원동정

▶12회 변주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 연차 총회에서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걸스카우트 지원재단 이사장)이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 연맹의 최고 훈장인 'THE SWIFT AWARD'를 수여받았다.

▶13회 홍사덕

지금 잠이 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듯
꿈이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다.
제도적 미흡을 탓하거나
겁내지 마라.
결단하라.
진정한 의미의 통일 준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하나의 정부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하나의 조국을 위하여 그는 생전에
이렇게 조곤조곤 외쳤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친구이자
국회부의장 역할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사덕 동문의 추모비 제막식이 6월 17일 그의 고향 영주 생가터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우리 동기회에서는
김도현, 김무일, 김용언, 손근, 이용, 이희숙, 조지명이 참석하여 홍사덕 동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묵념을 올렸다.

▶14회 김동호

김동호 동문이 은사 故 심춘섭 동문의 이름으로 서울대에 3억 원을 기부했다. 4월과 5월에 각 1억 원을 기부하고, 100개월간 100만 원씩 약정 기부를 시작했다. 김 동문은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 심춘섭 은사와 사제의 연을 맺었다. 고학하던 그에게 어머니 같은 정을 베풀어 준 스승이었다.

▶16회 김윤종

취임사
AIM 제14대 총동문회장
김윤종 회장

KAIST Alpine 초대 회장을 역임한 16회 김윤종 회장 (마성상사 회장)이 2022년 6월 9일 국내 1위, 아시아 1위, 세계 22위 최고의 명문 경영자과정인 KAIST AIM 총동문회에서 제14대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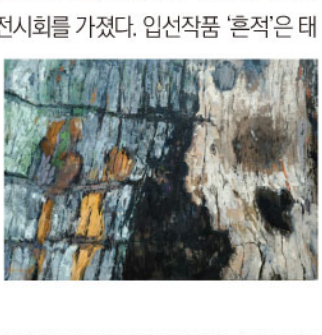
▶17회 성기학

THE NORTH FACE
Anniversary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 17회)는 지난 7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영원무역 주요 임직원, 파트너사 관계자, 초청 인사 및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등 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스페이스 국내 론칭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지난 1997년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2003년에는 국내 시장 진출 5년 만에 국내 아웃도어 매출 1위 기업에 올랐다. 이후 국가고객만족도(NCS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등 각종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오랜 기간 1위 브랜드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전국 산악인과 국민 스포츠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업계 최초로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2005년)'을 창단해 국가대표 선수 및 탐험가 지원 활동을 벌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최장기(2014년~현재) 후원사 활동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기학 회장은 "지난 25년간 노스페이스가 국민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스페이스에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과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25년간 업계 리더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회 윤명숙

7월 28일 열린 제26회 나혜석 미술대전 시상식에서 '흔적(50p oil on canvas)'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원 시립 만석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입선작품 '흔적'은 태국 칸차나부리 산책길에서 만난 거대한 야자수의 나무등치로 터지고 갈라진 상흔을 보며 뜨거움을 견뎌낸 삶에 경의를 표하며 그린 것이다.



▶21회 윤좌중

토웅이엔지 윤좌중 대표이사가 7월 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국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독자 특허공법으로 수도권 고속도로 교량 시장개척에 성공함과 도로 관련 각종 신기술개발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1회 이해자

시니어 모델(모델명 리송)로 활동 중인 이해자 동문이 6월 8일, 여러 동기는 물론, 같이 활동 중인 여러 유명 모델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자전적 에세이 '리송,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의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21회 조석순

미국 미시시피주 한국대표를 맡은 조석순 동문이 6월 26~29일 Washington DC에서 미 상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Select USA Investment Summit 2022'에 참석하여, 한국 회사들의 미시시피주 진출을 촉진하고 돌아왔다.

서울사대부고 럭비부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 우승

모교 럭비부는 7월 23~31일 전남 강진군 하멜럭비구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폭우속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충북고를 27-22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30회 최병기

국제치의학회 한국회가 5월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신입회원 인증식과 임기 2년 최병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새로 회장이 된 최병기 원장은 "치과계 최고의 리더 모임인 ICD 한국회의 회장으로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한 회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담아 치과계 뿐 아니라 세상을 밝게 리더하라는 뜻으로 만든 ICD는 현재 122개국에 1만 5,000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의 치과계 리더 모임"이라고 밝혔다.

▶30회 최철순

ConsMa 2022

우수 CM 사례를 공유하고 CM 세계화를 가속화하고자 열린 'ConsMa 2022 제12회 세계CM의 날 및 제6회 세계 CM 경진대회'에서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철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31회 박성민

박성민 동문이 8월 22일부터 7일간 열린 세계3쿠션당구월드컵대회에서 국제심판을 맡았다. 이 대회는 세계당구연맹(UMB)주관으로 4년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국내 최고 선수 뿐만아니라 세계 4대천왕이라 불리는 탑 랭커들 모두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31회 황기복

농협에서 정년퇴직한 황기복 동문은 고향인 충북 괴산에서 노인대학 등에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평소 재주를 인정 받아온 서예, 전통가요와 민요, 풍수학(실내 풍수 인테리어), 자연치유와 숲힐링 및 민간요법, 그리고 도수 경락에 대해 강연을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황 동문은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KNBA)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주관한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37회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에서 문과대학 학장으로 승진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남석(06회) 07.24.	양단석(11회) 06.06.
유방환(07회) 06.08.	김정례(12회) 08.14.
이영자(08회) 07.05.	홍미리(15회) 06.23.
정창길(09회) 05.07.	강익순(20회) 06.03.
주돈식(09회) 08.02.	

● 미주알 고주알 · 신간안내

미주알 고주알

우리 아이 결혼합니다

27회 최운선 딸 결혼
9월 25일 오후12시 / 페어몬트 앰버서더서울 B1 그랜드볼룸

31회 서중원 딸 결혼(사진)
9월 18일(일) 오후 1시 /
상암 월드컵컨벤션 그랜드볼룸홀

31회 황준호 아들 결혼
10월 9일(일) 오전 11시 /
서교동 웨딩시그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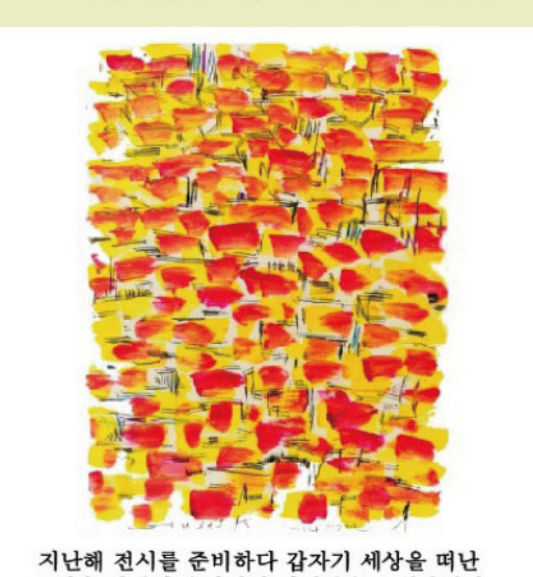
31회 정시현 딸 결혼
10월 9일(일) 오전 11시 / 엘타워 5층 오르체홀

39회 정지원 큰아들 최하영 결혼
10월 8일(토) 오후 1시 /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9회 염정자
23회 국제공모
인천국제미술전람회
'초대작가'로 참여

전시 : 2022년 12월 8~20일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조정숙(19회) 화백 유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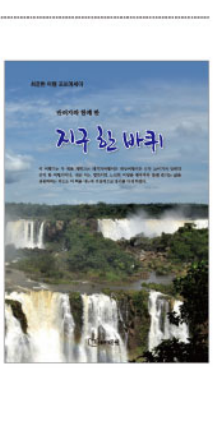
지난해 전시를 준비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조정숙 화백의 유작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유니크한 작품세계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2022.9.4 ~ 9.1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1전시장 (1F)

신간안내

▶ 21회 이해자
리송,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 범버범그루그
섬세한 시각과 애정으로 천재 음악가의 삶과 예술의 환희를 그린 위대한 예술가 소설
나이 73세에 톱 시니어 모델이 된 리송의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모델협회(KMA) 시니어 모델 분과위원장 리송이 말하는 나이듦의 행복 철학, 성공하는 남편과 자녀 만드는 주부의 프로페셔널 '집안 경영' 비법 일화.
이 책 「리송,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결혼 후 50년 동안 가족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주부가 나이 70이 되어서 평생 간직해온 패셔니스트의 꿈에 도전해 기적처럼 대한민국 톱 시니어 모델 자리에 오른 '화려한 재탄생'의 대명사 리송의 자전적 에세이다.

▶ 12회 최윤현
반려자와 함께 한 지구 한 바퀴
| 도서출판 태원 여행 포토에세이
이 여행기는 6대륙을 포괄하는 558 페이지의 대작이며 두 편을 세하는 패키지여행이든 배낭여행이든 보두 늙어가며 방짝과 같이 한 여행기다.
내심 어느 방면이던 노년의 여생을 배우자와 함께 즐기는 삶을 권유하려는 의도도 이 책을 내는데 간접적으로 용기를 내게 하였다.
'황혼 깃든 아드리아 해변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주 차분하게 돌려놓는다. 차창에 비쳐지는 고즈넉한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차분해진 이 평온한 마음을 언제까지나 부둥켜안고 싶다. 좀 시나니 평온한 나그네 마음에 시나브로 향수가 찾아든다.'
-「발칸반도 탐방기」중에서



아직은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 22회 박계화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 | 꽃씨

내 손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내 웃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내 발걸음이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에콰도르가 나를 끌어당겼다는 믿음으로 떠나온 길이 아니었던가. 적도에서 쏟아내는 태양 에너지가 내 영혼 속을 파고들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 타오르던 태양의 열정 에너지가 에콰도르 봉사 활동에서 설렘을 이어가게 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타 델 문도' 적도선에 서서 저자 박계화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에콰도르와의 인연을 떠올린다. 적도에 뜬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닫는다. 501일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떠난 에콰도르에서, 자신을 연주하는 미완성 교향곡이 시작되었노라고.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은 40여 년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자 박계화가 정년퇴임 후 시니어 인생의 2막을 펼쳐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다. 새로운 시니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그녀에게 하루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괴테의 말이 떠오른다. 그 말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거친 파도와 마주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코이카 126기 단원이 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에콰도르 생활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시니어 단원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배움의 속도 차이, 낯선 에콰도르를 홀로 떠나며 느낀 불안함, 현지인과의 어색한 소통까지…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긍정성과 진취성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간다.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혼자가 주는 매력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적막함과 외로움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걸음마부터 배워나간다. 정규수업제도가 없이 무작정 투입된 현지 아이들과의 음악수업에서는 스킨십 사인과 수업을 통해 교감을 시도하고, 학교의 선생님들과는 비빔밥을 만들어 나누며 친해지고자 노력한다. '음악 선생님 아가타'로서의 삶이 어색함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져가는 순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귀국명령으로 에콰도르를 떠나야만 했지만, 그녀에게 에콰도르는 제 2의 삶을 살게 해준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며,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리움은 몸이 먼저 안다. 기타를 꺼내 들고 가슴으로 현을 탄다. 아이들 마음속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는지 '작은 세상' 곡이 종일토록 귀에 쟁쟁하다. 코로나 사태로 에콰도르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귀국하게 된 허탄한 마음은 안데스 산맥을 떠돈다. 에콰도르 교향곡은 미완성으로 남고 말 것인가."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은 남은 시니어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한 여성의 뜨거운 성찰의 기록이자, 세상을 향한 한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의 에콰도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은 세상을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희망이란 씨앗은 모두에게 흘러 퍼지는 멋진 한 곡의 미완성 교향곡이 되었다.

'아직은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코이카 활동은 예기치 못하게 중단되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선택임은 분명하다. 태양의 나라 적도에서 언은 열정에너지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희망의 길을 이어가고 싶다.

저자 박계화 소개
서울천일초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41년 6개월 간 교단의 삶에서 내려왔다. 퇴임 후, 월간 문학『한국수필』의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 등단했다. 이후 저서『El Camino de Santiago 길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를 출간했다.
교단의 교육경험이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되어 남미 에콰도르에서 음악교사로 활동했다. 코로나19로 활동을 맺지 못하고 돌아와 에콰도르 아이들을 향해 쓴 수필로 2020년 공무원 연금수필문학상의 〈금상〉, 2021년 한국수필작가회의 〈동인작품상〉을 수상했다.

● 지회소식

● **탁우회** _ 회장 정만호(16회)

지난 6월 2일 13명의 회원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을지로 입구 한 식당에서 모임을 했으며, 오는 11월 5일 제2회 선농 탁구대회를 모교 강당에서 개최하고 신입회원 영입도 추진키로 하였다.
시합은 기수별 단체전과 개인, 단식,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형식의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혹시 탁구대회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탁우회 김성렬 총무에게 (010-2329-490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농여성전문인회** _ 회장 정범순(20회)

제161차 선농여성전문인회 특강

지난 6월 9일(목) 시청 앞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61차 조찬강연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4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초청 강사인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7회) 前 러시아 주재 대사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곡해' 강의를 들었다.
아울러 회원들의 요청으로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속석 강의를 이어나가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조찬에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낸 이희범 前 산자부장관이 참석해서 회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다음 모임은 주영숙 前 덕성여대 총장 초청으로 양주에 있는 조각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 **선농사진동호회** _ 회장 이근수(17회)

지난 5월 회의에서 정해진 대로 매월 출사와 품평회를 갖는 정기적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6월에는 강화 읍내와 주변을, 7월에는 여주 세종대왕릉과 신륵사를 탐방하였다.
매월 첫째 금요일은 출사하고, 각 개인이 담은 사진으로 2주 후 총동 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님의 품평과 감상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다. 같은 사물이나 풍광을 담아도 각 개인의 성향과 사진을 담는 그 찰나의 순간 차이로 결과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도 신비롭다.

사진이나 선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동문께도 같이 출사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주변 선사 회원이나 총무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 http://snsjh.snubugo.net
문의처 : 총무 윤상학(25회) 010-5293-1147

● **총동합창단** _ 단장 김태식(22회)
〈총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총동합창단 (단장 김태식)은 오는 10월 25일(화) 저녁 상명대 아트센터 대신 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갖는 정기연주회로 권혁준(42회) 지휘에 박은애 반주로 합창과 남성중창, 솔리스트 독창과 악기연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유우회** _ 회장 천세기(29회)
유우회는 6월 5일 모교 5층에 있는 유도장에서 선후배 만남(OB·YB 대회)을 가졌다. 9회 유승열 선배부터 77회 재학생까지 모였다. 100명이 안 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를 외쳤고, 애국가는 아니 했다.
이어 9회부터 28회까지 릴레이 연설이 있었는데, 말씀은 길었으나 재미는 없었다. 왜 28회까지였느냐 하면, 회장이 29회라서였다. 아무튼 듣는 사람은 '먼 산 보기'요, 말씀하는 분은 '신나 하기'였다.
시합에서 겨루기한 최고령 선수는 23회 임춘호 선배로 평소 제정신이 아니신지라 3분 시합에 2분 32초를 버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70세의 이 무모한 청년은 자의 반 타의 반 심하게 내던져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시합 후 참가자 모두는 현수막에 개발새발 적었다. 그 중 눈에 띄는 문구가 "선배들께 충성! 동료에게 우애! 후배들께 겸손!"이었다.
못 오신 선후배들이 찬조금을 보냈다. 16회 김윤종, 20회 이상린, 25회 김토진, 이형권, 임장호, 최인근 … 기부다. 많이 보내셨다. 저 멀리 베트남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께 인사드렸다. "오늘 저희 행사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락 챙겨드리라 했는데,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저씨 말씀하신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유우회 모임이라 들었는데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기분 좋습니다." 이럴 땐 쌩까는 게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던지고 바로 뜁니다. 휘파람 불며 고래 춤추듯 학교를 나온다. 유우회 OB·YB 대회였다. 6월 5일 일요일이었다.

● **총동문산악회** _ 회장 정순철(36회)

서울사대부고 총동문산악회 정기산행

서울사대부고 총동문산악회에서는 6월 산행으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금병산을 올랐고 7월엔 강원도 평창에 자리 잡은 선자령을 다녀왔다. 2020년 1월 한탄강 트래킹을 끝으로 막혀 있었던 원정산행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재개된 것입니다.
원정산행을 기다려 왔던 많은 동문의 관심과 호응을 받아 금병산 88명, 선자령 5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변역에서 만나 선후배님들과 눈인사 나누고 커피믹스 한 잔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먼 거리 버스를 타고 도착지에 가는 내내 마음은 마냥 설레었습니다. 산행 답사 기수의 안내를 받으며 어느 코스로 오를지 생각하다가 머뭇속에서는 벌써 산 정상을 몇 번이나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행하는 동안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성스레 준비해 온 간식을 건네며 선후배님들과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서울사대부고 총동문산악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큰 자랑입니다.
올해는 물가가 크게 올라 버스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매월 산행 회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후배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비의 인상분만큼이나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과 실속 있는 준비로 산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물꼬를 튼 원정산행이 올해 하반기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산행을 할 것입니다. 산행에 참석해주시는 동문께 더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남은 일정도 함께 해주실 것과 더욱더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하겠습니다.

● **선농경영인회** _ 회장 김기명(27회)

선경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구글 본사와 카카오 인사 부사장을 역임한 권텀 인사이트 황성현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고 조찬모임을 가졌다. 오래간만에 선후배 간의 친목과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캐나다 동창회** _ 회장 이양배(22회)

서울 사대부고
CANADA 동창회

혹서 주의보가 나온 무더운 날씨에도 20여 명의 토론토 거주 동문들이 팬데믹 이후 2년 반 만인 2022년 8월 6일(토) 이양배 동창회장(22회) 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하계 바베큐 모임을 가졌다.

●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 납부로부터"

2022. 01. 01 ~ 2022. 08. 20

연회비 4만원, 모교발전기금 1만원입니다.
보내주신 연회비는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 체계로
천하부고의 역사를 계승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납부방법 (문의 : 사무처 02-588-7871)
▶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계좌 1005-701-788162
▶ 지 로 입 금 : 동봉한 지로용지 이용 금융기관에 납부
▶ 현 장 납 부 : · 각종 행사 시 동창회에서 접수 창구 설치 예정
· 동창회관 2층 사무처에서 연중 접수

임원회비

회장회비 (200만원)
이강년(25회)

부회장회비 (100만원)
권경임(25회), 김성욱(25회), 김인호(25회), 심상덕(25회), 원유동(25회), 유제홍(25회), 이 훈(25회), 정인모(25회), 한명용(25회), 이진형(26회), 김기명(27회), 심상인(27회), 장덕상(30회), 최병기(30회), 김영준(32회), 정순철(36회), 최치영(36회), 현숙원(44회)

감사회비 (40만원)
김종규(20회)

기별회장회비 (40만원)
윤승태(07회), 김태무(10회), 조지영(13회), 성경모(14회), 김성서(15회), 심창섭(16회), 이진구(16회), 정 선(17회), 송낙영(18회), 이호균(19회), 이성봉(20회), 오무근(21회), 이기선(22회), 손창조(23회), 변형완(24회), 김준석(25회), 권명선(26회), 이예선(28회), 김경순(29회), 이종식/윤현숙(31회), 배병철(32회), 노용오(33회), 김영범(35회), 김준호(36회), 이종오(39회)

이사회비 (20만원)
조해옥(11회), 이희숙(13회), 현광언(13회), 김명자(14회), 황혜선(14회), 구하자(15회), 연형흠(15회), 진근천(16회), 김혜령(17회), 이병원(17회), 정명애(17회), 정인숙(17회), 강창희(18회), 김현숙(18회), 성기청(18회), 오종근(19회), 윤용열(19회), 장기숙(19회), 강현자(20회), 박영숙(20회), 신은숙(20회), 오성숙(20회), 윤금호(20회), 정순숙(20회), 조순희(20회), 김미화(21회), 김영수(21회), 김해진(21회), 노부호(21회), 오원석(21회), 임선옥(21회), 한민덕(21회), 남은순(22회), 박정례(22회), 이종문(22회), 김종희(23회), 박혜인(23회), 배성수(23회), 이지웅(23회), 이혜경(23회), 정란용(23회), 정윤용(23회), 홍승경(23회), 김유준(24회), 박정은(24회), 배형수(24회), 한정화(24회), 신성호(25회), 안병길(25회), 김원오(26회), 차경호(26회), 박영준(27회), 서동훈(27회), 최운선(27회), 김영승(29회), 허서자(29회), 김은선(30회), 박귀희(30회), 이화근(30회), 권학인(32회), 김정애(32회), 박대순(36회), 강현철(44회), 이상욱(44회), 박장규(47회)

기별분담금

50만원 : 13회, 15회, 16회, 38회, 39회, 42회, 44회 / 350만원
100만원 : 16회, 17회, 18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8회, 30회, 32회, 33회, 34회, 36회 /1,600만원

연회비

1회 : 故박병배 (1명)
2회 : 강성은, 김여순, 김종직, 변용성, 유병우, 정한태, 무기명 (7명)
3회 : 김명이, 백남수, 이의영 (3명)
4회 : 김영순, 김인수, 김인숙, 김정지, 김탁일, 유지한, 정수경, 최계숙, 최정숙 (9명)
5회 : 김선양, 김정환, 김종오, 박복출, 박세춘, 신현태, 유재빈, 이혜영, 임길빈, 한문희 (10명)
6회 : 김명국, 박종오, 안인선, 안정원, 유인숙, 이순원, 이재분, 이종갑, 임명숙, 임은경, 최광률, 홍성열 (12명)
7회 : 경동호, 김영숙, 노순주, 목요상, 민병채, 박명숙, 박성호, 송태진, 신문식, 심영보, 안정순, 윤승태, 이봉주, 이용부, 이인호, 이재악, 이치익, 위득호, 정숙경, 주영숙 (20명)
8회 : 구자흥, 김기엽, 김상엽, 김석영, 김의재, 김인애, 김전억, 박명순, 손근수, 송혜경, 우종심, 이묘범, 이복자, 이옥근, 이창배, 이현태, 장현경, 조영태, 홍순자 (19명)
9회 : 고희영, 권재혁, 김낙배, 김명기, 김승진, 김영원, 김의나, 김정일, 김직현, 김태한, 민대식, 변금진, 손경해, 신승일, 양현순, 염정자, 오영옥, 이기준, 이수빈, 이태욱, 이현순, 장문기, 전수영 (23명)
10회 : 권혁춘, 김서환, 김연기, 김윤순, 김종서, 김주영, 김중현, 김창규, 김태무, 김현순, 민경선, 민병섭, 박귀희, 박민재, 박임성, 서군자, 염준세, 오현근, 유경순, 이규진, 이병재, 이석호, 이선호, 이순규, 이운주, 이종구, 이종탁, 이창배, 이해봉, 장병용, 전성희, 정순영, 조정호, 진명식, 최권용, 최윤만, 최중서, 하명환, 한규섭, 한은희, 황인수 (41명)
11회 : 강신중, 강정호, 권오경, 김동연, 김명순, 김영은, 김정기, 김정자, 김혜동, 류간성, 류재호, 민란기, 박옥순, 박창덕, 사종식, 성기호, 신혜숙, 심명진, 엄정섭, 유익선, 유정자, 윤경자, 윤혜자, 이광용, 이인숙, 이정란, 이정자, 이정동, 이창용, 전정혜, 정영자, 정지우, 정화자, 조혜숙, 최부원, 최영자, 현정자, 홍승표 (38명)
12회 : 고국남, 김영철, 김예나, 김철희, 김현자, 민수광, 박양서, 박영자, 송영욱, 심현설, 안진자, 원병희, 유승옹, 이문영, 이문호, 이성주, 이수자, 이양배, 이재현, 이정자, 이창대, 임영자, 정재호, 정 철, 최윤현, 호문익, 황원선 (27명)
13회 : 강양빈, 곽정선, 김기영, 김봉환, 김수창, 김영일, 김영훈, 김용언, 나길웅, 문혜자, 박성하, 박영구, 박영범, 박영자, 배영숙, 백효휘, 변영일, 서정원, 손문익, 오현근, 우영배, 원춘자, 이경희, 이기재, 이범관, 이석호, 이순자, 이원호, 이용웅, 이의돈, 이종헌, 이철용, 이지운, 이혜민, 이 형, 이형택, 이희자, 인형무, 임경자, 장순주, 전 관, 정경자, 정길자, 정용우, 조정준, 조지영, 조한익, 최규순, 최부일, 한정신, 홍경자, 홍순자, 홍혜자 (53명)
14회 : 고문자, 금정호, 김광자, 김동호, 김명자, 김성자, 김용찬, 김인숙, 마명자, 박달현, 박인순, 박준식, 박용미, 방수자, 변정선, 변종흠, 서정숙, 송기범, 송선희, 신효영, 안영근, 엄숙자, 오수자, 오영환, 유기원, 유승빈, 윤덕중, 이건우, 이광재, 이규풍, 이대경, 이무준, 이병일, 이선자, 이순빈, 이웅모, 이웅진, 이창용, 이태윤, 전문자, 정규혁, 정선자, 조경자, 조완숙, 조중하, 채현기, 채혜자, 최경희,

최영상, 최철긴, 허인명, 한영광, 허수창, 홍수경, 홍창용, 황대우, 황혜선 (57명)
15회 : 구용혜, 구하자, 권순옥, 김경숙, 김경애, 김경지, 김동철, 김성식, 김승준, 김영길, 김종길, 김홍중, 박기용, 박순영, 박정옥, 백정현, 손용구, 송위섭, 신현철, 양기수, 연형흠, 왕진수, 윤계섭, 윤병길, 이남구, 이부자, 이성미, 이옥희, 이정복, 이태경, 이희자, 장규식, 장기충, 전건영, 정동진, 정두경, 정명자, 정송소, 조종만, 조해식, 진창수, 채영세, 최영숙, 최원명, 한영민, 홍원유, 황동규 (47명)
16회 : 강기종, 강인지, 김광현, 김명현, 김양자, 김응종, 김은영, 김정자, 김종숙, 김진국, 김풍지, 노준용, 맹혜영, 박상규, 박수일, 박정숙, 박정애, 박효범, 방유정, 신동복, 신인숙, 신혜순, 심준식, 심창섭, 오동신, 이상례, 이석영, 이종건, 이효숙, 장용웅, 정민호, 정숙자, 정영경, 정영숙, 정태영, 주현길, 천수호, 한동건, 홍대원, 홍사순, 황정환 (41명)
16랑 : 고명자, 권진세, 김순자, 김인영, 김창환, 김홍건, 이곤자, 전홍식, 진근천, 채명희 (10명)
17회 : 강신호, 강창길, 경의명, 곽경호, 권유중, 김근실, 김명재, 김명자, 김백균, 김수희, 김영순, 김영희, 김영희, 김옥례, 김원명, 김인기, 김정규, 김정애, 김정희, 김종애, 김혜영, 김홍기, 나진옥, 남기영, 노창우, 목철수, 문정지, 박군지, 박수지, 박정규, 박종지, 박혜영, 박혜우, 서병수, 송병길, 송영수, 신길승, 신진우, 심상훈, 염영섭, 염영필, 오동건, 오성환, 유기동, 유이순, 유지현, 유진필, 유창종, 윤현모, 이강선, 이광성, 이근수, 이문언, 이병림, 이병석, 이병한, 이상용, 이상환, 이연희, 이일희, 이정숙, 이화숙, 이화연, 이화진, 이효은, 이희림, 임건식, 임재홍, 임정엽, 장경민, 장문선, 장재선, 장장수, 전재명, 정기현, 정명애, 정병조, 정 선, 정순채, 정용진, 정인숙, 조대명, 조정국, 채희지, 최석찬, 최순우, 홍완숙, 황광익 (88명)
18회 : 강향숙, 권오성, 권정임, 김두성, 김성환, 김순예, 김용배, 김정순, 김종락, 김철수, 김춘영, 김춘태, 박모용, 박현채, 변진식, 신건섭, 유재희, 윤제철, 이광렬, 이기향, 이덕연, 이명섭, 이상조, 이석모, 이재임, 이현주, 이화봉, 장규하, 전광우, 전동수, 전해숙, 정춘영, 정택주, 조현모, 조창래, 진영윤, 최정민, 표천근, 황규철, 황병조 (40명)
19회 : 강상빈, 권순성, 김동진, 김명기, 김명복, 김수지, 김운길, 김 정, 김종성, 김중현, 김혜성, 문창식, 박 종, 박 천, 박찬용, 박현숙, 변원일, 서지영, 성영준, 손형원, 송영옥, 신태건, 유옥지, 윤용열, 이규성, 이기훈, 이도영, 이상분, 이상재, 이오숙, 이정길, 이인자, 이재석, 이재희, 이지영, 이효균, 임석재, 임연철, 임재환, 장기숙, 정동원, 장수명, 전동길, 진서연, 최용장, 한문희, 한정희, 현영욱, 황서영 (49명)
20회 : 강석완, 강익순, 강진경, 고승범, 구관서, 김경오, 김기순, 김상현, 김영식, 김영옥, 김영희, 김옥련, 김용민, 김 인, 김인식, 김종구, 김진보, 김창숙, 김현수, 남기문, 민성남, 박동옥, 박영순, 박정숙, 박준구, 박찬범, 박찬옥, 박충남, 성백엽, 성철중, 손정순, 송선실, 송재영, 양균석, 엄경섭, 원선지, 유인선, 윤기숙, 윤금호, 윤두중, 이난희, 이상규, 이세영, 이종오, 이종일, 이찬민, 이해란, 이현의, 이호림, 임광수, 임희규, 정은희, 정주식, 조남철, 조문행, 조순희, 조영익, 주동선, 차진호, 한규현, 한정민, 한희숙, 황인규 (63명)
21회 : 강광희, 강경철, 강정희, 고종환, 김동준, 김미화, 김상림, 김영숙, 김여영, 김영두, 김용빈, 김원근, 김주완, 김해진, 김혜경, 김혜순, 김효숙, 노부호, 민혜옥, 박수영, 박순호, 박종만, 박혜옥, 서정곤, 송완영, 안양균, 안희영, 안희태, 엄익환, 오무근, 오정희, 원용국, 유명재, 유성무, 유정옥, 유 탁, 윤기정, 윤치훈, 윤항수, 이미자, 이상란, 이석환, 이영하, 이인순, 이인옥, 이종원, 이종인, 이창걸, 이해문, 이혜자, 이효범, 임채복, 전재니, 조석순, 조성교, 지윤업, 차현덕, 최정국, 팽경애, 한대교, 홍현숙, 황준용 (62명)
22회 : 강인수, 고석현, 곽순애, 김관수, 김금랑, 김성철, 김익식, 김인걸, 김진영, 김진완, 김태식, 김희자, 남은순, 박남준, 박은화, 박정애, 박정희, 박형식, 신혜란, 안광원, 윤소영, 이건우, 이기용, 이상국, 이상례, 이용금, 이의상, 이종문, 이주영, 이홍숙, 정옥경, 정용걸, 정인준, 정진대, 표정자, 한승훈, 한준희, 허문정, 홍사건, 홍사성 (40명)
23회 : 강명숙, 곽신근, 권익규, 김경자, 김광은, 김복경, 김상진, 김상현, 김승호, 김영옥, 김정자, 김유화, 김인순, 김재영, 김재웅, 김정숙, 김정영, 김종미, 김진국, 김태현, 김태흥, 김현중, 김혜란, 김홍진, 노문선, 맹행열, 문순지, 문인화, 박계웅, 박상욱, 박욱규, 박광근, 박은희, 박정화, 박흥식, 배경숙, 배한기, 서승경, 서재선, 성기열, 송재철, 신가수, 신연선, 신정희, 신종원, 오광봉, 오현희, 우종찬, 유 라, 윤영자, 윤영규, 윤재운, 이경재, 이규영, 이기환, 이명자, 이석하, 이소현, 이순열, 이인기, 이장용, 이정우, 이주진, 이한식, 장명자, 정명수, 정복숙, 정상국, 정성식, 정영수, 정인환, 정재희, 정태영, 정태호, 정혜용, 조동순, 조양례, 조화숙, 주성혜, 채희리, 천혜영, 최공순, 최병철, 최성욱, 최영숙, 최인선, 최인숙, 최정애, 한영민, 한흥자, 홍복기, 홍애영, 홍현숙, 무기명 (94명)
24회 : 강명숙, 강인화, 강준원, 김경애, 김교빈, 김기영, 김기홍, 김유준, 김인성, 김혜란, 김혜선, 김화윤, 남정애, 문상영, 문재현, 박영숙, 박성영, 박승순, 박운진, 박정은, 박흥일, 백연화, 백영란, 변영화, 서광호, 선성규, 신영숙, 심기원, 심영숙, 유병숙, 윤미홍, 이경희, 이기찬, 이영숙, 이사랑, 이상림, 이성범, 이영지, 이인숙, 이재홍, 이중례, 이진순, 이태종, 이향희, 임정훈, 정경훈, 정교철, 조규식, 최영임, 최성식, 최영귀, 한주숙, 허동욱, 홍리애 (54명)
25회 : 강윤강, 강준석, 강태숙, 권경임, 김명희, 김병애, 김보미, 김보옥, 김순지, 김인호, 김정건, 김종만, 김창동, 김태명, 김토진, 김현만, 김혜석, 남선례, 남화창, 배원종, 변진호, 봉원표, 서명지, 서병일, 설옥희, 성국현, 송상영, 신명자, 심상덕, 안병길, 양일승, 오인지, 우순옥, 우제명, 원유동, 유성수, 유재홍, 윤상혁, 이경희, 이명수, 이광형, 이기열, 이선희, 이상일, 이성희, 이수지, 이영규, 이영무, 이완기, 이원호, 이종윤, 이학길, 이형권, 이 훈, 임우성, 임종선, 장영철, 장 신, 장영수, 전인숙, 정나나, 정성혜, 정영숙, 정은근, 정인모, 조순지, 조운순, 조현수, 최문지, 최재병, 한명순, 현상남, 현종진, 홍성연, 홍성태, 홍성태, 황건중 (77명)
26회 : 권금옥, 김명선, 김영미, 김문영, 김순희, 김영실, 김원일, 김인미, 김종희, 김태오, 남기열, 변순영, 신용경, 유영순, 윤석균, 이용은, 정성근, 정영희, 조순정, 차경호, 홍영규 (21명)
27회 : 계용준, 고광욱, 고은희, 권영옥, 권현수, 김기명, 김서영, 김영이, 김영희, 김지현, 김진혁, 김현숙, 남천현, 박교식, 심상인, 이근혁, 이나희, 이영숙, 이용우, 이 혁, 임도희, 임윤규, 조용길, 진양교, 한현우, 홍혜경 (26명)
28회 : 김동환, 김우성, 김종철, 김한길, 김혜경, 김효명, 민동준, 성경애, 송예민, 오성진, 유재영, 윤성택, 이명희, 이예선, 이욱식, 이진복, 이한석, 조영수, 채동훈, 한재광 (20명)
29회 : 권기선, 김종춘, 김판규, 노명환, 민영주, 박금순, 박미숙, 박순천, 변성진, 송태영, 신동명, 연경희, 유보형, 이경진, 이성배, 이재훈, 정병덕, 허서자 (18명)
30회 : 강미숙, 곽운주, 김대진, 김영춘, 김은선, 김재호, 박귀희, 박재흥, 박찬호, 박한희, 성혁진, 송병기, 신선미, 안태현, 오효진, 유정아, 이경미, 이병국, 이선구, 이충열, 이해원, 이효정, 장동권, 장연섭, 정수경, 정연심, 태종순 (27명)
31회 : 강영준, 김경훈, 김기운, 김동택, 서중원, 손혜정, 이정현, 이형준, 임혜진, 정건희, 정시현, 조창식, 한경준, 황달연 (14명)
32회 : 권우희, 김광복, 김명순, 김영례, 김영준, 김정애, 나기훈, 박무선, 배병철, 성대중, 안성진, 이경찬, 이승섭, 이 원, 임영희, 정경돈, 정순희, 최동범, 허동성 (19명)
33회 : 김광훈, 노용오, 박영석, 지동희, 지한호 (5명)
34회 : 강구창, 박병우, 유춘화, 이원중, 정정화 (5명)
35회 : 김영범, 김용호, 박종한, 이창희, 조용식 (5명)
36회 : 김효신, 류한경, 서경숙, 성기동, 유성현, 윤찬호, 이덕은, 이원섭, 장임철, 전 휘, 정순철, 최병석, 최치영, 허정윤, 홍성표, 홍지숙 (16명)
37회 : 김영대, 김희진, 오현주, 이강희, 이승수, 황승경 (6명)
38회 : 김진구, 박영애, 오인환, 정순희, 조주은 (5명)
39회 : 박동균, 이성욱, 최선옥 (3명)
40회 : 김현정, 황수경 (2명)
41회 : 이해범, 임재승 (2명)
42회 : 김형찬, 한정민, 황용기 (3명)
43회 : 김연중, 김태균, 류한천, 이승환, 정원심 (5명)
44회 : 김형관, 안주억, 정동균, 현숙원 (4명)
45회 : 이승진 (1명)
46회 : 김은옥, 오 룡 (2명)
47회 : 김현정, 나용식, 박성용, 신혜진, 우남영, 정혜영 (6명)
48회 : 권형탁, 박상수, 박종학, 심형섭, 임성원 (5명)
49회 : 구진백 (1명)

• 무기명 : 33명 • 납부인원 : 1,239명

● 글로벌 동창회 소식

北美 13개 주 동문 연합회 통해 끈끈한 결속 다져

미주 서울사대부고 총연합회(이하 미주연합회)는 5년 전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유인선 동문(20회)의 권유로 북미(캐나다 포함) 13개 주에 거주하는 동문 소통의 장으로, 또한 모교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주연합회 설립 후 미주 및 한국, 그리고 제3국에 거주하는 동문과 크루즈 여행을 통해 첫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뉴욕 1회, 로스앤젤레스 2회 등 총 3번에 걸친 모교 학생 초청 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결속의 기회를 가진 바 있다.

미주 10회 동기회서 미주연합회에 후원금 전달
김민주 회장님께 :
서울사대부중고 총동창연합회 김민주 회장님,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 10회 회장 손난주입니다.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연합회 10회는 2005년에 회원 76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52명의 Active member들이 있고, 우편으로 연락하다가 현재는 e-mail로 주소변경과 경사와 조사를 연락합니다.
미주동창회 10회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창회 10회와 함께 여러번의 모임과 여행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에서 10회 동문들이 각 지역별로 모입니다. 미주동창회 10회는 주소록을 만들어서 각 동문들에게 우송했고, 회비를 걷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동창회 10회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22년에 동창회비를 정리하기로 해서 청산했습니다. 다음에 미주동창회 10회의 동창회비 잔액을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에 기증하기로 해서 여기 $750.00을 보냅니다.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미주총동창회 10회 회장 손난주 올림

"미주 웹사이트 개설…한국 동문들과 소통 기대"

안녕하십니까. 미주 서울사대부고 총연합회 회장 김민주 인사드립니다. 총연합회가 발족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후배 동문의 협조로 동문회와 본교 및 본국의 동문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 부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특히 모교 교장 초청, 본교 학생들의 미주 방문 및 글로벌 동문 크루즈 행사는 미주 13개 지역 동문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교를 생각하며 본국 동문과 만났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잠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지난 몇 년간 5회에 걸쳐서 발행해 왔던 연합회 회보 또한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발행이 어려운 지경에 봉착했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소통의 장인 '북미 서울사대부고 총연합회'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문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연합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문의 헌신적인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총동창회보에 미주 소식이 게재됨으로써 한국 동문과 미주 동문이 서로의 소식을 알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문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명실상부한 '천하부고'의 이름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긍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처음 시도로 많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미주서울사대부고총연합회 회장 김 민 주 (21회)

▶시카고
4월, 11회 오세방 동문(14회 연숙자)의 80세 생일을 맞아 시카고 동문회 동문과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종진, 정정숙(19회 김정숙) 부부, 커뮤니티 모범봉사상

정종진 전 문인회장과 부인 정정숙 씨가 '제39회 아시안 구정 잔치'에서 '커뮤니티 모범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시카고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회 주최, 말레이시아 커뮤니티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크브룩테라스 소재 드러리 레인 극장에서 열렸다.
정종진 씨는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봉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왔다"며 "이번 상을 계기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욕

뉴욕 동문회는 매월 월례회로 25명 가량이 계모임 형식으로 모여 여러 곳을 간다. 지난 5월에는 'Stormking Art Center' 야외 조각공원을 다녀왔다.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으로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故 백남준 작가의 작품도 두 점 전시되어 있다.

▶애틀랜타
현재 30여 명의 동문이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진 애틀란타 동문회는 신년 정기총회, 봄·가을 야유회, 격주 금요일 산행, 추계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에는 뷰포드댐에서 정기 야유회를 개최했으며, 푸짐한 음식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상품도 제공하는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동문회 가입 문의 :
678-262-7857(임혜옥)
213-595-8335(황춘기)

애틀랜타 예정 행사 계획
1) 9/14(수) 오후 12시경. 골프대회 4팀(16명) 예정.
장소는 참가 인원 확인 후 Chicopee Wood Golf Club에 booking 예정.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과 골프 대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회 종료 후 중식당 '금불'에서 저녁 5시~6시경 모임 예정.
2) 10/19(수) 추계 야유회. 장소 미정
3) 12/15(목) 전후 송년회. Old Country Club의 Club House에 예약 가능 여부 확인 중.
골프장 booking을 위해서 참가 인원 파악이 필요하니 참가하실 분들은 카톡에 올려 주시고, 골프를 안 치시고 저녁에 중식당 '금불'에 참석하실 분들도 카톡에 올려 주세요.

● 글로벌 동창회 소식

美대륙 횡단은 기본 … 만나면 3박 4일
미국에 사는 22회 동기들의 '통큰 만남'

현재 심종택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22회 미주 동문회의 동문들은 심종택과 최완섭의 주관으로 201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미주 거주 동문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LA(16명), 2016년 신현구 주관 애리조나(8명), 2019년 크루스 여행(30명), 2021년 최완섭·채양식 주관 시애틀(19명), 금년에는 김학수 주관 미시간(18명)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각 주에서 18명이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김학수의 배려로 본인의 미시간 호수 옆 별장, 5만 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장의 체제 농막 그리고 Airbnb를 대여하여 18명이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3박 4일의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위해 일부 팀은 직접 운전을 하여 그리고 일부 팀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시간에 모였습니다.
LA팀의 일부는 항공편으로 오리건 포틀랜드로 이동, 4박 5일 진명규와 최완섭의 안내와 접대를 받으며 그곳의 관광을 마친 후 항공편으로 미시간 모임에 합류하였습니다.
김학수의 세심한 일별, 시간별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각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골프, 인디아나 둔 내셔널 파크, 화머스 마켓, 시카고 리버 크루스, 밀레니엄 파크의 관광과 체제의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직접 따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 끓일 수 있는 들통을 가진 사람은 들통을 가져오라는 신현구의 징집 명령과 함께 공군 복무시 취사반에서 갈고 닦았던 취사 실력을 발휘하여 부대찌개, 닭백숙, 꼬리곰탕 그리고 모임 마지막 날 저녁에는 각자 취향에 따라 안심, 등심, 뉴욕, 티본스테이크까지 선택할 수 있는 등 모임 내내 모두가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명규 동문은 친구들에게 전하라며 멕시코 천연 자연산 꿀과 함께 모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적지 않은 금액의 기부금을, 그리고 채양식, 송재형도 이번 모임을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의 고마운 마음이 담긴 선물과 기부금으로 모두 풍족한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1일 모임 공식 해산 후 LA팀들은 시카고 김학수 소유 콘도에 숙소를 정하고 시카고에 거주하는 최병선의 접대와 안내로 시카고 시내와 일리노이스 에반스톤 관광을 마치고 LA로 복귀하였고, 일부 팀은 신광용 주관하에 미

시간 소재 Pictured Rocks Lakeshore 관광을 마치고 / 고 설치하고 또 시카고 시내 관광을 인솔하며 프로 이상

집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미시간 호수의 수평선으로 지는 붉은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와 농담을 하며 웃고 먹고 마시며 때론 박장대소를 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낮에도 차를 타고 관광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이야기와 농담으로 종일 웃다가 어느덧 3박 4일의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숙소 제공과 모든 여행 일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주관하여 준 김학수, 모임 내내 앞치마까지 두르고 일품요리 솜씨로 모두의 입을 즐겁게 하여주고 식사를 마련해 준 신현구, 마지막 날 5만 평의 농장 가운데 농막 베란다에서 광란의 밤을 위해 노래방 기기를 준비하의 가이드 실력을 발휘하고 수고한 신광용, 모임을 기획한 심종택 동기회장, 모임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희사금을 기부한 채양식, 진명규, 송재형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리 서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아직 그날의 아쉬움과 그리움의 여운이 남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도 22회 동기 그룹 방 카카오톡은 "카톡 카톡"하며 울립니다.

심종택 회장은 이런 글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세월에 여과되고 응축된 친구들의 진한 커피 향 같은 향기가 차라리 그리움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크루스 여행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황춘기(22회)

LA출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의 첫날 밤
잊지못할 네브래스카의 스테이크 맛
미시간 호숫가엔 10여 명의 동문들이…

대륙횡단 D-1(7월 3일)

7월 8일 미시간호숫가에서 열리는 '22회 동기 모임' 참가 준비를 위해 대륙횡단 하루 전부터 차량 점검에 나섰다. 다행히 며칠 전, 1만 마일 서비스 점검을 받아 별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세 명의 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다. Los Angeles(이하LA)의 친구들은 안영순 여사(동문) 주관하에 아침 일찍 오리건행 비행기를 탔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준비물을 점검하고 난 후, 차량에 싣고 나니 어느덧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7월 4일

아침 일찍 신현구 동문 LA 딸의 집으로 출발했다. 부지런히 달려 짐을 싣고, 다시 심종택 동문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이른 아침을 한 타 해마루에서 해결한 후, 미시간으로 향하는 대륙횡단 길에 올랐다. 대륙횡단을 위해 내가 사는 동쪽 산 버나디노로 다시 돌아와 15번 도로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입구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이날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저녁과 함께 멋진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7월 5일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신현구, 심종택, 박흥주는 "호텔 무료 버스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차로 공원을 다닐 것이냐?"를 의논한 끝에 제대로 마음껏 보기 위해서는 우리 차로 결정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35달러.

신현구 동문의 철저한 준비로 62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패스 할인권(예전에는 평생 이용권을 10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 이용권이 80달러, 1년 이용권 20달러이다)을 제시하고, 약 4시간에 걸쳐 전체 view 포인트를 섭렵했다.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서로 이야기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산과 또 산 사이에 진짜 시골길을 굽이굽이 돌아 70번 하이웨이를 타고 나니, 어두워지기 시작해 다시 잠자리를 찾아 이동했다.

7월 6일

Denver에 도착 전 Aspen 휴양지에서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멋있는 산세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로라도를 지나 네브래스카로 들어서니 하늘이 까맣게 변하면서, 토네이도 경고 문구가 떴다. 피하라는 지시에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로 피신했는데, 쏟아지는 우박과 회오리바람은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약 30분 시간이 지난 후에 경보 해제가 되어 날은 어두워졌지만 길을 재촉하던 중 다시 경보가 발령되어 비상등을 켜고 저속으로 전진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고무공사 표지판이 바람에 밀려와 차량 사이드미러를 강타하여 파손되었다. 비상시에는 운행하지 말고 피하라는 교훈을 또 한 번 되뇌이게 하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저럭 어두워질 때까지 가다가 다음 숙박지 근처에 거의 도착한 것 같기에 더 늦기 전에 심 동문이 추천한 식당을 찾았다. 백 년도 더 넘었을 것 같은 조그만 식당은 시골길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식당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가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네브래스카의 유명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다. 정말로 너무 맛있어서 오래도록 기억날 것 같다.

7월 7일

시카고 김 동문에게 되도록 빨리 가도록 노력할 테니, 몸도 풀 겸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떠났지만,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다. 5시를 지나서야 골프장에 도착했지만,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 모처럼 즐거운 골프를 즐길 수 있었다. 골프모임이 끝나고 김 동문의 집에 오니, 딸의 집에 다녀온 김 동문 아내가 아주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어 잘 먹고 꿀잠을 잤다.

7월 8일

맛있는 아침과 오랜만의 수다, 그리고 동창 모임을 위해 짐을 챙기고 다시 출발 준비를 했다. 출발 전 우리 일행들은 셰프 신 동문의 인솔하에 H 마트를 찾았다. 먹을 음식을 잔뜩 사서 얼음에 채울 건 채우고 바리바리 차에 짐을 싣고 별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별장에 도착하니 신광용 동문의 인솔하에 미리 관광까지 하고 온 채양식, 김종옥, 예영자 동문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김용, 명순 동기 부부와 황춘기 동문이 도착했다.

셰프 신 동문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후식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후 김 동문은 공항으로 동기들을 마중 갔으며 우리는 첫 날 혼잡을 피하고자 먼저 식사하고 새로 테이블 세팅한 다음, 늦게 도착할 여덟 명을 기다렸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 다음 밀렸던 이야기, 못다 한 이야기, 학교생활에서 느꼈던 많은 일들과 우리들의 예전 모습들을 상상해보면서 적당한 알콜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즐기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각자의 잠자리로 가게 되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멋진 하루였다.

글 · 박흥주(22회)

네오 NEO 네오메디제약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
서울사대부고 동문특가

NEW 흰색/검정색 선택가능
KF94 네오라이프 소프트 황사방역마스크
새부리형 출시기념 특가할인
30,000 원
100개 (5매 X 20개)

KF94 네오라이프 황사방역마스크
3D마스크 동문특가 할인판매
29,000 원
100개 (10매 X 10개)

주문처
문자나 카카오톡 주문 가능합니다.
(주)네오메디제약 대표이사 이상민(39회)
(주)네오메디제약 이사 손경수(45회) 010-3413-0678

밴드 / 의약외품 전문제조사 / OEM전문기업
(주)네오메디제약

맛…멋…향…더할 나위 없었던 25기 봄 소풍

서 명 자(25회)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의 만남은 잠정적인 휴면상태로 돌입했고 어언 2년하고도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야 원, 네 명은 되고 다섯 명은 안된다느니, 한 집에 주소지를 둔 세명까지만 된다느니 등등, 사정이 이런 지경이다 보니 동창들 모임은 그저 온라인으로나 명맥을 유지해 오늘에 이르렀지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선언되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곧 펄쩍 뛰어보기를 시도했죠. 팔다리에 이상은 없는 것인가? 하기는 팔다리에 근육이 풀리고 관절이 굳은 것은 굳이 뛰어보기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친구들을 안녕, 나도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고 싶었던 거죠. 25회 회장단은 봄 소풍으로 연천 체험을 계획하고 있었네요.

구석구석 여행사

우리는 상덕 부회장의 안내로 구석구석 여행사를 통해 연천으로 떠났어요. 이름도 정겨운 구석구석 여행사는 연천 주민들이 만든 주민여행사로 일반 여행사와는 달리 조합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역사, 지형, 자연환경 등을 소개하고 지역 맛집도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된다 했습니다.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자립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멋졌어요. 내용도 알차고 자연 경관도 어느 이름있는 관광지 못지않은 위용을 뽐냈으며 돌아오는 오후에는 어느새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죠.

우리는 오랜만에 긴 줄을 지어 걸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역지침이 있었지만 저도 친구들도 주름 가리개용으로 훌륭한 마스크를 벗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 별 내용이 없는 선물일지라도 언박싱은 기대와 설렘을 주죠. 풀기 전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소풍 내내 무슨 일이 기다릴까 기대감으로 한편 설레고 새로웠죠.

재인폭포

옛날 재인이라는 줄타기 장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미모가 출중한 아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고을 수령이 재인의 아내를 욕심내 재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려 하자 여자가 고을 수령의 코를 물고 폭포에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폭포를 재인의 이름을 따 재인폭포라 불렀고 동네 이름은 재인의 처가 수령의 코를 물고 자결했다 하여 코문리라고 한답니다. 고을 수령이 어째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어진 정책을 펼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 부부의 여자를 탐해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그 죄를 어쩐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전설이네요…. 그럼에도 설화는 스토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장으로 불러 모으는 빌미가 되었으니 이 아이러니라니…. 모쪼록 선량한 부부가 저승에서는 방해꾼 없이 사랑을 이어가기를 믿어 봅니다.

백학 박물관

연천지역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두일리를 알리는 벽화를 비롯하여 6.25 참전 용사들의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북한과 마주 보다시피 가까운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환경인지라 더욱더 내 고장을 지키고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었던 훌륭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1땅굴 모형과 큰 사건을 기록한 사진과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무기 등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품고 있는 이야기만큼은 작지 않은 박물관에서 해설사님이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흡사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는 소년 소녀가 되어 집중합니다.

호로고루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구려의 성곽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성터라는 유적지로도 가치가 있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포토존이라는 핫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네요.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인생 샷 되시겠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며 저더러 사진 잘 나왔다고 너 돈 내야겠다!!!라고 해서 웃었는데요. 저는 그녀가 찰나로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들이대며 너도 돈 좀 내야 할 듯싶은데? 했습니다. 친구는 제 사진이 잘 나와서, 저는 그녀의 못 나온 사진을 협박(^^)용으로, 인품이 드러나는 사건 맞죠? (셀프 디스입니다)ㅎㅎㅎ

세라비 한옥 카페

구석구석 여행사에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기본 음료로 주시고 메뉴가 달라지면 차액을 개인이 계산해 마시는 서비스를 더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멋진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아직 커피 맛은 잘 모릅니다. 구수하고 쌉싸름한 풍미와 온도가 맞을 때의 느낌을 좋아하고 그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커피 마시며 원샷으로 마시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그 향을 빼놓고 커피를 말할 수는 없지요. 커피 한 잔이면 방에 있는 모든 이에게 향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깊은 커피향을 들일 수는 없었으나 탁 트인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본 풍경은 눈을 감아도 고스란히 기억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었어요. 문득 좋았던 날의 어느 시간이 떠오르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좋았던 장소가 좋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커피는 정신적인 허기를 건드리고 채워주는 것이 틀림없어요.~

애심목장

3대째 가업으로 이어지는 애심목장에서 치즈 만들기, 피자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의 체험은 좀 더 다양해서 +아이스크림 만들기+스트링치즈 만들기+피자 만들기+젖소 건초주기 등 우리는 덩어리 치즈로 스트링 치즈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 크러스트 피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사 먹는 피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1인인데 앉은 자리에서 두 조각을 먹었습니다. 맛이 훌륭했어요. 치즈를 비롯해 유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수입품에 비해 월등히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맛으로 증명이 된 체험이었네요. 《좋은 날, 근사한 날》 한 자리에 모여 만날 수 없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은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간 움츠러들었던 근육들이 나 여기 있었소 하듯이 이튿날 넓적다리가 뻐근했지만 마음의 빈 곳은 더 빠르게 뭔가 채워져 있었어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염려를 했는데 맑은 햇살에 잔잔한 바람까지 구색 맞춰 들판을 채우니 자연 경관도 모두 나와 우리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좋은 날, 근사한 날입니다. 연천 봄소풍을 위해 수고해 준 회장단에 감사하며 집이 멀어 긴 시간 가야 하는 친구를 위해 사비를 털어 택시비를 쥐여주기까지 한 심상덕 부회장을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모임에 나온 일도 칭찬합니다. 두 팔로 스스로 한 번씩 안아서 칭찬해요. 다음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자고요.^^~

준호야 소풍가자!

황 준 호(31회)

나는 질푸른 수목만이 시야에 들어오는 오지중 창오지에서 산다. 가게 하나 없는 곳이기에 세 명의 아이들 조차 나와 집사람만을 남긴 채 다 떠나 따로 산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으니 간혹 친구들을 보고 싶지만 만날 엄두조차내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형준이가 콜라와 빵(이런 훌륭한 먹거리는 이곳에는 돈을 주어도 구입할 수 없음)을 사가지고 찾아왔다.

"내일 동창들 봄소풍 가는데 같이 가자."

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야! 너희들은 도시에서 맷깔 좋은 채소를 먹지만 난 여력이 안되어 벌레가 먹던 푸성귀만 뜯어 먹고 사는 처지 아니냐? 더욱이 그곳까지 가려면 교통비와 회비도 만만찮던데… 지금 내 형편으론 감당할 수 없어. 집사람이 알면 마음 상해 할테니 아무 말 하지마. 하긴 나도 꼭 가고 싶은데 그 놈의 돈이 무엇인지…"

착한 형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내가 지금 카카오 검색해보니 이곳에서부터 내일 만나는 장소까지 택시비가 23,000원 나오네. 내가 20,000원 줄 테니 내일 나와라."

난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더욱 풀 죽은 모습으로 말했다.

"택시가 가다가 막히면 택시비가 더 나올 수 있잖냐? 쓰는 김에 25,000원으로 하자."

형준이는 갈등을 하고 있었다.

"야! 20,000원도 내가 주는 거야."

"넌 우리 동기회 부회장이잖아. 원래 이런 일은 회장보다 부회장의 헌신이 중요하잖아. 야 짱구 그만 굴려. 어차피 20,000원 주겠다는 놈이 그깟 5,000원 때문에 이야기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냐."

"그래 알았어. 25,000원 줄 테니 꼭 와라."

마음속으로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표정을 관리하며 다시 애처롭게 말했다.

"그런데 회비는?"

"야 이…"

난 재빨리 손으로 그의 입을 가로막았다.

"그래, 네가 내 말에 적개심이나 분노 같은 것이 터져 나오는 것 백 번 이해한다. 하지만 난 너에게 그것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봄소풍을 위하여 투자할만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야. 내가 회비를 지원 받아야 너도 혼자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니 네 마음도 조금은 위안이 될 터이고. 다 너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 오해하지 마라."

형준이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친구를 머릿속에서 헤아리고 있기에 내가 말을 이었다.

"재영이는?"

"걔 요새 머리 아파. 좌우지간 내가 다른 애 물색하고 조치할게."

형준이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회장인 종식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앗싸' 이런 쾌재가 …. 힘이 없는 작은 목소리로 핸드폰을 들었다.

"웬일이냐?"

"형준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정말 나도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그 놈의 돈이 뭔지…"

"야 신익이도 온다고 하고 딴 아이들도 다 온데. 황기복이가 그곳 특산물인 황칠막걸리도 자비로 쏜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부회장님도 친구들 모임을 위하여 25,000원 투자하는데 회장님도 그 정도는 지불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아끼시면 회장님 명망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 돈 안 줘서 내가 소풍에 참석 못하게 된다면 회장님이 그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역시 순진무구 종식이가 말했다.

"알았어 줄게. 내일 와."

"근데요 회장님 서울에 도착하면 집으로 귀가하는 택시비는…"

"시끄러. 이게 언제 인간이 되냐."

"야 택시비 안 줄거면 내 인격에 해가 되는 말은 하지마라."

"어쨌든 오는 비용과 회비는 마련해 줄테니 꼭 와."

밤 9시경 잠을 청하는데 현준이 이름이 뜨며 휴대폰 벨이 울렸다. 현준이는 내가 하도 친구들을 모임에 안 나가니까 자신의 일이 바빠도 늘 시간을 내서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기에 순간 일곱빛깔 무지개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일 잘 갔다 와라."

"넌 안 가냐?"

"내가 차비가 있냐 회비가 있냐? 그냥 형편되는 너나 잘 놀다 오면 됐지."

친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현준이 또한 다른 동창들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택시비하고 회비 내주면 올 거냐?"

"내가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네 간을 빼먹냐? 왕복 택시비가 50,000원, 회비가 25,000원, 도합 75,000원인데 나도 그것을 다 요구하면 정말 나쁜 놈이 될 터이니 50,000원 주면 나도 25,000원 정도는 투자할텐데, 친구야 보고 싶다."

현준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가 줄테니 내일 보자."

간단 명료한 그의 말에 내가 오히려 당황스러워졌다.

"50,000원인데…"

"친구들이랑 함께 소풍 가는데 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내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믿기지 않기에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보았다. 한 달에 한번씩 친구들이랑 소풍을 가면 내 살림도 훨씬 윤택해질 거라는 설렘을 안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종식, 형준, 현준이가 찌푸린 안색으로 나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한다. 특히 형준이가 정색을 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우리들 한테 삥을 뜯냐."

셋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어제 만든 작품을 알고 황망한 표정들이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기에 손사래를 치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나 같아도 욕이 절로 나간다. 하지만 어제 말한 그 금액 줄 요량이 아니면 나한테 욕하지 마라. 돈이나 받고 욕을 먹어야 억울하지 않지. 돈도 주지 않으면서 욕을 하는 것은 진짜 경우가 아니거든."

난 두 손을 그들에게 내 밀면서 말했다.

"자 욕하고 싶은 애는 얼른 돈을 줘."

속으로 저 인간들보다 일찍 오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 순간이었다.

출발하려고 버스에 몸을 오르니 아침 요기거리로 떡이며 음료수 등등 이런저런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허겁지겁

뱃속에 싸고 양 많은 것을 채워 넣었다. 어느 정도 빈속이 정리되었다 싶은 때에 삶은 문어가 나왔다. 옆 좌석에서 조용히 있던 명영이가 이제야 시식을 한다. 나쁜 놈이란 생각이 든다. 먹거리가 나오는 순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몇 번이고 떡하고 음료수를 먹으라 권해도 들은 척을 안 했던 명영이가 맛갈나게 문어를 입안에 집어 넣으면서 말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본 먹거리는 후반전에 나오는 거란다."

양만 많고 질 낮은 싸구려 먹거리로 가득한 뱃속은 단 한 점의 문어도 허락하지 않았다. 역시 친구들을 모임에 자주 참석해야 이런 노하우도 터득 했을 텐데….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독거의 생활을 만끽한 결실은 이런 처참한 자승자박 결과를 낳았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경숙이가 내 자리를 지나치며 말했다.

"이게 윗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해."

폭력적인 그 분 앞에서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했는데요."

"이게 못생겨가지고, 앞으로 조심해."

난 다소곳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언니도 처지가 만만치 않으신데 저한테 '외모'를 말씀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야 난 서방 외모를 뜯어 먹고 산다."

그 분은 자신이 말을 마치고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말이 안 되는지라 호탕하게 웃음지으며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볼 때 나도 그 외모에 깜짝 놀라고는 하지만 경숙이 신랑인 31회 동기 태희처럼 타인의 시각을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난 태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경숙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 생각했다. 인류애에서 표출되는 자기희생과 박애 정신이 없다면 태희같이 특출 난 외모의 분과 결혼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간단한 산책 후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니 기복이가 이곳 특산품인 '황칠막걸리'를 가져왔다.

황칠나무는 원래 왕이나 접할 수 있는 귀한 기물인데 세상이 좋아져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막걸리로 변신 마침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맛 볼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친구들 소풍 분위기를 돋워주는 벗이 있어 입안 가득 상쾌한 미소가 번졌다.

소풍을 준비해 준 임원분들 모두가 친구들이 불편해할까 봐 무던히도 고생을 한다. 특히 친구들이 굶어 죽을까봐 먹거리 준비에 헌신한 형준이의 노고와 분당에서 하차해야 할 종식이는 3일 굶은 개도 피해 간다는 '회장'이라는 직함 탓인지 친구들의 뒷모습까지 책임지려 자신이 내릴 곳을 지나쳤건만 친구들 분위기를 띄운다. 혹시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노심초사하는 회장단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다. 실로 오랜만에 잊어버렸던 학창시절의 미소를 얼굴 가득 되찾아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뱃속 깊이 아닌 내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글귀가 떠올랐다.

'동창들 모임에서는 어떤 감투도 받지 마라. ㅎㅎ~'

적재적소의 인재가 필요할 때!
어디서 찾으십니까?

맞춤형 인재, 아웃소싱 전문기업 S&B휴먼에서 찾으십시오!

인재파견
- 사무
- 비서
- 콜센타
- 운전기사
- 채용대행

건물관리
- 경비
- 미화
- 주차
- 시설관리
- 보안

인재도급
- 생산직
- 물류센터
- 병원
- 호텔

대표 : 김여영 (부고21회) 010-5662-7003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7 풍림빌딩 1117호
전화 : 02-713-5033 / 팩스 : 02-714-5033 / 이메일 : snbhuman@snbhuman.co.kr

S&B휴먼
Smart and Best Human Resource Service

▶9회 _ 회장 조동암

80대도 중반을 넘기고 있는 우리 9기는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 이때다 싶어 열심히 모임을 했다.

6월 10일 구인 회원들 인천 나들이, 6월 27일 아름다운 정원 레스트랑 '어반가든'에서 24명의 여자 동문이 모여 17세 소녀로 돌아가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맘껏 누렸다. 두 동문의 괴력으로 푸짐하게 뒷풀이하고 아쉽게 헤어졌다.

7월 9일 구구회 정기모임을 인사동 대성식당에서 하고 8월 9일 구구회 모임은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방문했다. 일제강점기, 8.15, 6.25전쟁, 4.19, 5.16, 12.12 등등 다 경험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정기자 동문은 선미회 5차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 예정이다.

▶10회 _ 회장 김태무

지난 7월 2일 하계임시 오찬 모임을 중화요리 점인 '안래홍'에서 40명(남 20명, 여 20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는데 이날 식사 비용은 황인수 전 동창회장이 부담해 주었다. 항상 이런 동문이 있어서 우리 모임이 활기를 띠는 것 같다.

7월 22일 넷째 금요일 동기 산행 모임인 선농 산우회를 서울대공원에서 가졌다. 여름 날씨지고는 장마 끝이라 날씨도 선선했고 구름이 끼어 햇빛을 가려주는 바람에 녹음 짙은 장미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약간 낭패스러웠지만 그마저 우리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했다. 중식은 '봉덕샤브샤브'집에서 칼국수로 포식하고 왔다. 이날 참석한 동문은 15명(여 8명, 남 7명)이었다.

▶12회 _ 회장 채수강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졸업 60주년(2020년) 추진위원들이 7월 20일 강선중 회장의 주선으로 2년여 만에 몽중헌 반포점에서 모임을 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상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천하부고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채수강 회장의 위트는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동안 전체 모임은 하지 못했지만, 졸업 60주년 기념식 때 주려고 했던 기념품 대신 연락이 되는 국내외 모든 동문에게 2021년 4월에 선물비용으로 2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리고 임원진에서는 그동안 매월 국내 남녀 동문과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 근황을 주고받고 있어 모두 고마워한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는 오는 10월에 전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13회 _ 회장 조지명

13회(흙회)는 지난 6월 10일(금) 400회 산행을 맞이하여 회원 23명이 오전 8시 30분, 14명이 압구정을 출발하여 8시 50분 동천 정류장에서 분당 친구 9명과 합류해 원주로 예상보다 30분 일찍 간현관광지에 도착했다.

강원도 원주 소금산 GRAND VALLEY 산행을 하고 하산 후 김봉환, 김춘자 Duo가 사주는 얼음과자, 식혜로 속을 달래고 우리소 식당으로 이동 고급 한우로 점심을 먹고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14회 _ 회장 성경모

선농축전후 동호회별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을 뿐 전체 모임은 없었다. 동호회 활동도 모이는 인원이 거의 10명 미만으로 미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임인 당구모임 홍백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 게임도 즐기고 회식도 하며 취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년에 그래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두뇌나 신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당구라고 주장하며 멤버들 중 고정자들에겐 자체적으로 사범으로 호칭하기도 하는데 함께하는 여동들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산악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산행하고 있고 일요일가 참석을 못 한다는 사람이 꽤 있어 토요일 혹은 금요일로 바꾸어 실행을 해 보고 있지만 이젠 나이 탓인지 여전히 참석 인원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을에 있을 졸업 60주년 기념 여행을 위해 회장단에서 현장 답사도 다녀오고 준비중이다. 이번 여행은 졸업 60주년 축하 특별 여행이라 해외여행을 기대했었지만, 해외여행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 동해안 쪽으로 2박 3일간(9/28~30)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미리 신청을 받았더니 거의 70명 정도가 신청해 오랜만의 여행에 대한 모두의 큰 기대를 보여 주었다.

연말에는 11월 14일 양재동 L 타워에서 총회 겸 송년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

▶15회 _ 회장 김성식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12월 1일(목) 12시에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갖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동안 중단됐던 가을 여행도 9월 22~23일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일정을 잡았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내년 졸업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호회 모임도 시작하여 산악회(회장 김정윤)는 5월에는 서오릉, 6월에는 우면산을 걸으면서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당구모임(회장 김태경)과 바둑모임(회장 최명욱)도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3년 만에 열린 선농축전에는 동기 46명이 참석, 오랜만의 해후를 즐기고, 행사 후에는 푸짐한 식사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몇몇 뜻있는 동창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한층 흥을 돋워주었다.

5월 하순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박시영, 부명자 두 동창이 귀국하여 15회의 나사모 회원 20여 명의 초대, 미국에서의 활동 상황도 들려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두 동창은 약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며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동창도 만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다.

나사모 회원들은 6월 초 현충일을 맞아 25회 이형권 회장 주도로 고교연합이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참여, 현충탑과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후 각자 연고 묘를 찾아 뜻깊은 행사를 했다.

▶16회 _ 회장 심항섭

1. 선농축전

오래간만의 금번 선농축전에서는 을지로 캠퍼스와 왕십리 캠퍼스 멤버들이 함께 정답게 포즈를 취하며 한 커트 찍었다.

2. 해외 동기 방문 환영

1) 미국에서 온 민건홍과 호주에서 오래간만에 귀국한 이갑순 동기 환영회를 압구정 오미가에서 환영 모임을 했다.

2) 캐나다에서 일시 귀국한 이계웅 동기 환영회와 울산 시티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조현오 동기의 인공관절 치환술 5천 명 축하 저녁 모임을 6월 17일에 서초동 대원에서 가졌다.

3. 얼마 전부터 새로 개방된 청와대 옆 북악산을 5월 24일 18명(남 9, 여 9)이 등반했다.

4. 남춘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의 케이블카를 6월 28일 22명(남 11, 여 11)이 타고 춘천 닭갈비를 즐겼다.

5. 11월 2일 가을소풍을 맞이하여 해외에서 귀국하는 친구들을 포함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를 걷고 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계획이다.

▶17회 _ 회장 정선

방역 해제로 각종 모임이 활동을 재개하였다.

매주 수요일 산수회는 남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등 서울에 있는 둘레길을 걷고, 17산우회는 매주 토요일 서울 근교 산을 찾아 가벼운 산행 후 맛난 점심을 나누며 건강과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 한 달에 2번 금요 당구모임, 여행 동호회 등 소모임들이 활동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9월 29일에는 대청호로 70여 명이 참석하는 나들이가 있고 12월 7일에는 입학 60주년 기념 및 송년회가 있다.

▶18회 _ 회장 송남영

지난 7월 17일(일)에 18회 산악회에서 양구 나들이 행사가 있었다. 산악회는 코로나로 2년여 동안 모임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재개 첫 행사로 22명이 전세 버스로 강원도 양구로 떠났다.

양구에 도착해서는 박수근 기념미술관과 인문학박물관(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을 관람하고, 파로호 인공습지 한반도섬을 산책하였다. 선선한 날씨에 미술과 문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전시관을 관람하고, 수려한 풍광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오랜만에 보고픈 친구들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만끽한 하루였다.

더욱이 점심과 저녁은 양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함소남 동문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냉면과 삼계탕으로 포식하였다. 모두가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모임을 약속하며 빠듯하게 헤어졌다.

▶19회 _ 회장 이호균

명품세토회(회장 유성효)는 지난 5월 26일 관광버스를 전세해 모두 27명이 명품 친구들이 강릉과 정동진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잘 짜인 일정 속에 많은 친구가 참석해서 정동진 시간 박물관~모래시계 공원~동해안 해변 바닷가~솔밭 조각공원~경포호수공원 등을 둘러보았다. 제주 통갈치 조림, 활전복, 낙지, 대하, 오징어, 골뱅이, 영양 강황 솥밥으로 구성된 푸짐한 점심 식사 후에 맑고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삼삼오오 짝을 이뤄 해변 모랫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흥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 가득했던 19회 당구모임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오랜 기간 모임을 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최근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분위기를 고려하여 일단 만남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매월 첫째 목요일(8월 4일 빌랴드구장) 모임을 목표로 19회 당구회(初本會) 재건의 장을 마련했다.

▶20회 _ 회장 이성홍, 김기순

지난 7월 3일 제318차 산행으로 대전에 있는 계족산을 다녀왔다. 계족산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로 유명하다. 우리 동기 39명은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말랑말랑한 황톳길을 맨발로 걷고 산림욕장을 걸으며 더위를 잊고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산행 후 '마중 가는 길'이라는 맛있는 한정식 집에서 맛난 점심을 먹었다. 더욱이 이날은 대전에 사는 도영규 교수가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어 더없이 고마웠고, 6, 7월에 생일을 맞는 친구 7명을 꽃과 케이크로 축하해 주어 더없이 즐거웠다. 우리 20회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오랜만에 버스를 전세한 좋은 산행에 힐링하고 많이 즐거운 하루였다.

★ 20회 소식 및 계획

7월 23일 — 기우회 하계 수련회
8월 27일 — W&R 하계 수련회
9월 22일 — 선구회 추계 라운딩
9월 29일 — 여동창 모임(총무 선출)
10월 22일 — 가을소풍
12월 17일 — 20회 총회 및 송년회

▶21회 _ 회장 오부근

3년 만에 힘들게 열린 선농축전과 뒤풀이 행사에 75명의 친구가 참석해 오랜만에 반갑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덕에 이젠 동기회의 모든 동아리가 제 일정 계획대로 빠짐없이 개최되어 즐거움을 한껏 나누고 있다.

당구, 진자사모(자전거), 빛그림(사진), 탁구, 바둑, 가경회(스포츠댄스), 그린21(골프), 토요산행 등의 모든 취미 동아리를 위시해, 지역별 동아리인 동부, 서북부, 남부 모임들도 모두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더 멋진 한 해를 즐기기 위해, 9월 하순에는 하룻밤을 같이하면서 진도 등 남도 지방의 멋있는 바다 경치와 맛있는 먹거리들을 즐길 '숲과 바다로 떠나는 9월의 소풍' 계획을 진행 중이고, 11/21일에는 양재동 엘타워에서 3년 만에 갖는 정기총회와 멋진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다.

동기 모두 건강하고, 열심히 어울리면서 멋진 한 해를 제대로 즐겨보자.

▶22회 _ 회장 이기선, 박정례

22회 동기산악회(무이회)는 7월 산행을 안산 자락길을 택했다. 장맛비 그친 폭염의 첫 일요일. 큰비에 젖었던 벼와 과실들이 태양 빛에 마르며 탄탄하게 익어 가기를 바랐다. 어떤 이는 집안 시원함에 젖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겠지만, 무이회의 남자 아홉, 여자 다섯, 14명은 땡볕 속을 걸었다. 독립문공원 한쪽에서 만남부터 매 월 봐도 처음 보듯 좋다. 30여 분을 걸어 올라가서 전망대에 서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왔다. 모처럼 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이었다. 2시간 남짓 우거진 숲속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브작사브작 걸어서 최종목표지점 홍제천 인공폭포까지 완주했다. 8월 계곡 산행은 더위와 코로나 재유행으로 아쉽지만 쉬기로 했다.

7월 임원 회의에서는 10월 발에 실시예성인 수학여행지(신안섬 일대, 목포)를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일정을 10월 27일(목)~28일(금)로 조정하며 숙박 및 식사, 여행 장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심 차게 준비한 수학여행이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사태가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3년 동안 하지 못 했던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11월 22일(화) 양재역 L타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3회 _ 회장 손창조, 박혜인

서울사대부고 23회! Carpe Diem!

늦은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 왔다.

6월 12일(일) ~ 6월 14일(화) 까지 2박 3일 동안 남동 33명 , 여동 47명이 함께 강원도의 명소를 찾아 다니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돌아왔다.

▶24회 _ 회장 변형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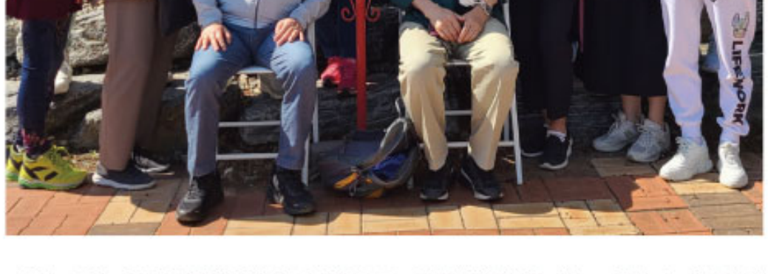
이야기는 다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식을 줄 모르며 지속되어 50년 전 학창 시절로 모두를 돌려놓은 듯 즐거운 모습이었다.

1972-2022 서울사대부고 24회 졸업 50주년
지난 50년 "땡!" 앞으로 50년 "큐!" Thank you!

▶25회 _ 회장 강준석

1972-2022 서울사대부고 24회 졸업 50주년
지난 50년 "땡!" 앞으로 50년 "큐!" Thank you!

지난 6월 21일 38명의 동기가 모여 역사 해설과 함께하는 창덕궁 후원 관람을 하였다. 가까이 있어도 늘 생각만 할 뿐 관람하지 못하던 조선시대 전각과 왕들의 정원을 보며 선조의 지혜와 함께 아픔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정원(후원)을 거닐며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었으나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들과의 시간이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10여 년 전부터 선교 생활 중 오랜만에 임시 귀국한 김애경 동문이 바쁜 일정을 틈내어 참석하여 오랜만에 해후했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참석한 친구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충무로역 동방명주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와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난 5월 26일(목)에 봄 소풍으로 연천체험을 하고 왔다. 대형버스 1대에 띄엄띄엄 앉아 갔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친구들로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얘기 주머니를 풀었다. 해설사와 재인폭포를 둘러보고, 집밥처럼 잘 차려진 점심상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애심목장에서 가진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 체험은 우리 모두를 어린이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수백 개의 장독이 있는 멋진 한옥 카페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불러왔다. 그날의 우리를 위한 날씨는 그렇게도 멋진 '호로고루'와 하늘의 멋진 구름, 보리밭 등을 망설임 없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는 9월 17일에는 양재역 인근 탁구장을 빌려 탁구대회를 할 예정이며 10월 17일에는 가을 소풍으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둘러본 후 서울시립대 수련원에서 바베큐 파티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6회 _ 회장 권영선

코로나 앤데믹으로 방향전환 이후, 본격적으로 동기들의 각 동호회 활동과 동창회 차원의 전체행사가 팬데믹 이전의 활동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동기회 집행부에서 주관한 올 상반기 동기 야유회 행사를 지난달 6월 23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의 순담계곡 잔도길, 고석정, 산사원 등을 권영선 동기회장 및 38명의 동기가 다녀왔다.

우중 나들이가 되긴 하였으나 날 궂기에 아랑곳없이 우리 남녀동기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화기애애함이 가득했다.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한탄강 협곡의 주상절리길, 잔도길, 전망대, 교량 등 협곡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과 기암괴석이 펼쳐져 신비로운 자연에 취해 본 한나절이었다. 곧이어, 오후엔 임꺽정의 활동지였다는 고석정과 최근 오픈했다는 인근 꽃밭(30만평? 축구장 33개 넓이)에도 우산을 가볍게 받쳐 들고 발자국을 남겨놓기도 하였다.

귀경길에 들른 산사원(전통주 박물관/우곡 기념관, 배상면주가)에서의 시음의 기회는 그 날 우중 나들이에 대한 넉넉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입안 가득 풍요로운 맛으로 채울 수 있었고 우리 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다. 참여했던 모든 동기가 만족해하는 모습은 더없이 즐거운 하루였다. 이후, 올 하반기에 예정된 동기 행사는 '추수행'(9.29/목~9.30/금)과 2022년 송년회(12.9/금)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28회 _ 회장 이예선

《탁류》(2011) 전시를 준비하던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It was the time of President Lee Myung-bak when I was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서울대학교 윤동천 교수 정년 퇴임 기념전이 2022.6.2~6.19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었다. 1993~2022년까지 30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후 정년 퇴임을 했다.

'산만의 궤적'으로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었던 퇴임전은 윤 교수의 1970년대부터 2010년대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조명하였다.

윤동천 교수는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의 작업을 구성하는 핵심은 '일상'으로, 한국 근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대 정신을 관통한다. 한글의 적극적인 활용과 한국어로만 표현 가능한 언어유희 한국의 지역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는 오브제의 사용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탈식민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7회 _ 회장 이한방, 이명숙

7월 27일 22명의 동기가 대치동 S 타워의 갤러리 S 2A에서 〈쿠사마 야요이-영원한 여정〉을 관람했다. 이 전시회는 글로벌 세아그룹의 갤러리 개관전으로서 쿠사마의 대표작을 비롯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까지 다채롭고 풍부하게 꾸며져 있다. 특히 세아그룹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김기명 동기가 친구들을 위해 큐레이터를 초대, 깊이 있는 해설을 듣게 해주었다. 오는 10월 예정인 김환기 전에도 초대해주겠다고 하니, 27회 동기들의 전시회 나들이는 쭉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30회 _ 회장 장세준

서울사대부고 30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름밤 목멱산 추억쌓기

목멱산(木覓山)은 서울 남산의 옛 이름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옛 것을 그리워하고 미래를 기대한다.

천하부고 30회 졸업은 옛일이지만 늘 우리 동기들 마음속에 있다. 동기끼리 만나서 반가운 얼굴을 보며 옛날을 회상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값지겠는가. 30회는 7월 23일 주말 저녁에 이름하여 '목멱산 추억 쌓기(부제: 한 여름밤의 소풍)' 행사를 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4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추억의 돈가스로 저녁을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타워를 관람하였다. 명동으로 내려와 호프로 건배하며 화합을 다짐하고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31회 _ 회장 이종식 · 윤현숙

뜨거웠던 문경새재 소풍! 3년 만에 가져 보는 친구들과의 소풍,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날도 뜨거웠지만, 우리도 뜨거웠다. 47명이 모여 문경새재로 소풍을 떠났다.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피곤한 기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버스에 올라탔다. 어떤 친구는 소풍 전날이라서 설레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김서중의 문경새재에 얽힌 버스 안 역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때 그 시절보다 훨씬 진지하다. 오랜만에 떠난 소풍이라 모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에 도착하여 길을 함께 걸으며, 드라마세트장 관람을 하며, 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끝없는 이야기가 오간다. 김종애 선배님의 배려로 오미나라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서 와인에 대해 공부도 하고, 문경 제1경이라고 하는 진남교반에서의 경치 감상으로 마지막 일정을 뒤로 하고 하루 동안의 즐거운 나들이를 마쳤다.

우리 친구들 참 끈끈하다. 누가 그랬던가? 호적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호적과 국적 바꾸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학적을 바꾸는 것은 사문서위조 행위가 된다

소풍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친구가 고맙다. 특히 문경에 사는 김진무는 친구들이 온다고 현지에서의 일정과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주고, 황기복은 친구들 먹이고 싶다며 괴산에서 맛있는 막걸리를 공수해 오고,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준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32회 _ 회장 배병철

모두들 너무 오래 궁금하고 기다렸나 보다. 코로나 종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도 선농축제에 예년보다 많은 40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궁금해하며 모였다. 소식을 교환하며 웃음이 그치지 않던 점심시간 발표된 공지사항, 미루었던 10월 제주도 환갑여행이 발표되고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 60명이 넘는 신청폭주에 회장단은 잠시 당황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33회 _ 회장 노용오

지난 5월 16일 그리움의 총량 담아 친구 찾아 떠나는 여행 3탄으로 제주 서귀포를 다녀온데 이어 5월 29일에는 '만원의 행복은 또다른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연극 '행오버'를 전관 대여하여 33회 동기 및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33회 산악회는 6월 5일 한양도성길을 다녀왔다.

10.30~31일(1박 2일) 환갑여행(또 다른 행복찾기)을 고교시절 수학여행지였던 경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송년회는 12.2일(금) 오후 7시에 총동창회관 3층 선농홀에서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35회 _ 회장 김영범

겨울 산행의 대명사 선자령 산행을 여름에 간다고 그래도 가고 싶었던 곳이기에 35회 동기들과 함께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8명이 합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생긴 일들로 다섯 명만 참석 총동산악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관령휴게소에서부터 선자령 정상까지 왕복하는데 4시간 30분(중간휴식시간 포함). 그러나 산길이 완만하고 또한 대관령 양떼목장을 바라보고 풍력발전소의 휘날리는 날개도 바라보며 걷는 길은 힘들지가 않았다.

총동산악회를 우리 35회가 내년엔 잘 이끌어보고자 준비 중인 산행, 많은 친구의 동참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8월 산행은 수타산 산행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는 산행으로 우리 기수가 사전답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사전답사와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모두 모여라! 산으로….

▶36회 _ 회장 김준호

7월 3일~4일 양일간 36짱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2년 만에 여주 시그너스CC에서 있었다. 4팀 16명이 참석하여 1박 2일간 치러진 대회에서 천기수 친구가 최종우승을 하였고 뒤풀이로 즐거운 식사 시간이 있었다.

▶37회_ 회장 이승수

서울사대부고 37회 동창회

참으로 얼마 만의 정모인지…. 반갑게 맞아주는 회장단과 속속히 도착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이었다. 코스로 나온 회 한 젓가락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시작으로 밀렸던 이야기가 쏟아졌다. 민트향 농담과 알콜향 진담이 오가는 작은 가게 안의 분위기가 정다웠다. 3년이라는 시간이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놓았는지 짐작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든 혹은 아팠든 날들이었음에도 그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웃고 떠들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음에 이 얼마나 기쁜지. 여전히 기억하고 이름 불러주며 모임에 늘 초대하는 친구들이 있음에 이 얼마나 고마운지.

▶39회 _ 회장 이종오

지난 7월 17일 이종오 동기회장 장녀 결혼식에 여러 동기가 참석하여 새 출발 하는 한 쌍의 커플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모처럼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44회 _ 회장 정동균

5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경복궁역 주변에 44회 9명이 코로나 이후 정식모임을 가졌다. 올해 졸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앞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의논을 해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47회 _ 회장 채웅석

지난 6월 23일, 오랜만에 동기들 모임이 있었다. 젊음의 상징인 강남역 한복판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폭우를 2층 야외에서 바라보며, 동기들 간의 좋은 일 슬픈 일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았다.

2년 만에 재개된 동기 모임으로 한껏 오른 취기를 발산하며, 더욱더 끈끈한 47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다음 모임은 다가오는 체육대회에서~.

특수학급 – 플로어 볼 팀

제16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출전

서울사대부고 특수학급 학생 8명과 특수교사 2명은 전라북도 구미시에서 진행된 제16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플로어 볼 팀 선수와 감독·코치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했다. 수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각 지역의 대표 팀들과 2박 3일간 멋진 경기 펼쳤다. 비록 6위라는 성적을 받았음에도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행복을 간직하고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예체능교육부 – 스포츠리더단

체육 한마당 열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단됐던 체육 한마당을 5월 13일 운동장에서 다 같이 모여 실시하였다. 이번 체육 한마당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스포츠 리더단'이라는 학생동아리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하기까지 행사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체육 한마당을 통해 앞으로 체육행사들이 교사가 중심이 되는 행사가 아닌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의 일환이 되었으면 한다.

생활교육부

생명존중캠페인

또래 상담부에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주관한 생명 존중 캠페인 '마음약국'을 등교 시간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또한 자살 예방 OX 퀴즈 활동을 통해 자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한편 존재 자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생명존중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연구지원부

학교현장실습

본교에서는 지난 5월 2일(월)-5월 27일(금)의 4주간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18개 교과에서 졸업생 2명(고려대, 한남대)을 포함, 총 142명을 44명의 교사가 지도하였다. 1주 차에는 학급 학생 대면, 시범수업 참관, 교과 수업 참관 등으로 본격적인 실습을 준비하였으며, 2~3주 차에는 실제 조종례 실습, 교과 수업 실습, 체육 한마당 사제동행 참가 등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학교 교육현장을 이해했다. 또한 마지막 4주 차에는 총평회, 학급 고별식 등으로 지도교사, 학생들과 실습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4주간의 대면 실습이었으나, 실습생, 학생, 교사가 합심하여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실습 기간을 만들었다. 실습 종료 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실습생은 '노력하는 교육자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고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창체지원부

공연동아리 '버스킹'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 방학식을 앞둔 7월 13~14일에 걸쳐 서울사대부고 공연 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 앞에서 작은 '버스킹' 공연했다. 12일에는 밴드부 학생들이 학생 체육관에서, 13일에는 치어리딩 부와 댄스부 학생들이 1층 로비에서, 14일에는 음악예술부 학생들이 역시 1층 로비에서 공연하였다. 많은 학생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공연동아리 학생들은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MANDARINA DUCK

WWW.YOUNGONE.COM

인류와 지구의 행복
ESG 경영으로 영원해집니다

KOREAN EPZ
YOUNGONE
YOUNGONE

방글라데시에 300만평의 숲을 조성하여
130여종의 동,식물들이 다시 숨쉬는 땅으로!

전 세계 곳곳에
Roof-Top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영원무역의 ESG경영이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YOUNGONE
SINCE 1974

Who's 사무처